

# 목 차

## 글로벌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그린·디지털 전환

2022년 8월호

### ▶ 종합보고

### ▶ 동향 조사

1. 동향 조사 개요 및 범위
2. 아시아-유럽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동향
3.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4. 결론 및 정책 제언
5. 기타 경제 동향

<b>I</b>	<b>종합보고</b> .....	<b>i</b>
	1. 동향 조사 개요 및 범위 .....	i
	2. 아시아-유럽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동향 .....	ii
	3.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	xvii
	4. 결론 및 정책 제언 .....	xxii
	5. 기타 경제 동향 .....	xxiii
<b>II</b>	<b>동향 조사</b> .....	<b>1</b>
	1. 동향 조사 개요 및 범위 .....	1
	가. 조사 배경 및 범위 .....	1
	나. 스타트업 생태계 개요 .....	2
	2. 아시아-유럽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동향 .....	4
	가.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	4
	나. 주요국 .....	10
	3.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	40
	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창업 생태계 현황 .....	40
	나. 한국의 창업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1~2023) .....	51
	4. 결론 및 정책 제언 .....	59
	5. 기타 경제 동향 .....	62
	<b>[참고문헌]</b> .....	<b>71</b>

# I. 종합보고 (Executive Summary)

## 1. 동향 조사 개요 및 범위

### 가. 조사 배경 및 범위

- 한국 스타트업의 효과적 해외 진출을 위한 국별 창업 생태계 이해 필요
  - (국별 스타트업 생태계 파악 필요) 한국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스타트업 및 창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
  - (지역별 상이한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가, 투자, 지식 인프라, 인적자본,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각국의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상이
- 동향 조사 범위
  - (공공 영역) △국제기구와 아시아-유럽 역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입안자를 위한 창업, 기업가정신 촉진 가이드라인 및 행동 계획 등 조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선도국가 및 아시아-유럽 국가의 창업,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 동향 조사
  - (민간 영역) 조사 국가별 운영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기관 조사

### 나. 스타트업 생태계 개요

-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
  - (개요) 통상적으로 창업 관련 정책, 금융 구조, 문화, 자원, 시장 구조로 구성
  - (Startup Genome<sup>1)</sup>) 성과, 자금, 연결성, 시장, 지식, 인재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평가

#### 시사점

-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국별, 또는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를 평가, 그 순위를 연례 발표하는 대표적 조사기관별로 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지표 설정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R&D → 투자 → 창업 → 성장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 정도를 다양한 지표로 측정·정량화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선별하는 추세
- (한국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한국은 정부의 활발한 창업 촉진 및 지원 정책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사업모델 확장과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및 신생기업 경영환경 글로벌화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선도 필요

1)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정보분석기관

## 2. 아시아-유럽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동향

### 가.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 1)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기업가정신 정책 프레임워크 및 이행 지침'<sup>2)</sup>
  - (목적)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목적의 정책, 프로그램, 전달 기관 설계 지원
  - (특징)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가정신 국가 전략'이 아직 부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을 위한 가이드라인 포함
  - (우선순위 지원 분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규제 환경 최적화 △기업가정신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기술교류 및 혁신 촉진 △재정 접근성 개선 △인식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 UN Foundations GEC<sup>3)</sup>(Global Entrepreneurs Council, 유엔재단 기업가정신 협의회)

- (개요) UN 재단 주도의 기업가정신 협의회(GEC)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상위목표로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체
- (구성) 전략적 자문 협의회의 형태로 각국의 기업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필두로 △여성,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멘토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협력 장려 프로그램 운영
- (대표 이니셔티브) 디지털 사회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 내 혁신적인 민간-UN 협력 이니셔티브의 안정화, 도약, 규모 확대를 위한 초기투자 진행

#### □ UN-SPBF(Science-Policy-Business Forum, 유엔 과학-정책-비즈니스 포럼) 'Green Technology Startup Initiative'<sup>4)</sup>

- (개요) UNEP(유엔 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가 진행하는 본 포럼의 '녹색기술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도모

2) UNCTAD(2012). "Entrepreneurship Policy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Guidance."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

3) UN Foundations 웹사이트. "Global Entrepreneurs Council."

<https://unfoundation.org/what-we-do/initiatives/global-entrepreneurs-council/>.

4) UN-SPBF 웹사이트. <https://un-spbf.org/>.

- (활동) △전 세계 녹색기술 분야 스타트업 관련 민간, 공공 행위자 간 소통 창구 마련 △혁신을 위한 촉진 정책 및 행동 계획 도출 △녹색기업 창업 사례 공유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안 마련
- (녹색기술 스타트업 마라톤) 글로벌 녹색기술 스타트업 창업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정책가 초청, 녹색기술의 산업 주류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 기업가정신 행동 계획 2020<sup>5)</sup>

- (개요) 유럽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 견인을 목적으로 기업 문화 혁신, 규제 개혁 등 관련 청사진 제공
- (배경) 신생 및 중소기업의 높은 고용 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개발도상국 대비 EU 회원국의 신생·중소기업은 성장 속도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 대두
- (창업문화)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창업문화의 상대적 저발달 타개를 상위목표로 선별,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우선순위로 설정
- (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활성화 △신생기업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신사업 발굴 △출구 전략 및 구제 안전망 다양화 △우수사례 연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 EU 스타트업 국가 규범(EU Startup Nations Standard, SNS)<sup>6)</sup>

- (개요) 본 규범 도입을 통해 EU 회원국의 스타트업 친화적 환경조성 도모, EU 역내를 창업 및 스타트업 규모 확장의 허브로 육성
- (절차) 서명한 EU 회원국은 일정 유예 기간 이후 규범 내 지침의 점진적 도입을 이행해야 '스타트업 국가' 인증 취득
- (주요 내용) 소규모 스타트업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 EU 역외 시민권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가 대상 비자 발급 간소화
-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온라인 설립 제도 등)
- 창업 및 경영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공공 입찰 및 조달에 스타트업 우대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엔젤 투자 세금 감면 제도 수립 등

5) EC(2013).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 Reignit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Europ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3A2012%3A0795%3AFIN%3AEN%3APDF>.  
 6) EC(2021). "Declaration on the EU Startup Nations Standard of Excellence," <https://startupnationsstandard.eu/index.html>.

##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 ASEAN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침<sup>7)</sup>

- (개요) ASEAN 회원국 및 ASEAN 중소기업 조정 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MSME)의 스타트업 정책 수립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지역(subnational), 국가(national), ASEAN 역내(ASEAN-regional) 단위별 최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지침 △전략적 우선순위 정책 분야 제안 △기업가 및 신생기업 대상 지속·일관적인 정책 지원 강조

[표] ASEAN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침 내 행위자별 세부 역할

구분	행위자	유관 생태계 요소	역할
Established entrepreneurial a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기업</li> <li>• 투자회사 기업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역량</li> <li>• 금융 접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li> <li>• 스타트업 투자</li> <li>• 창업 병목 자료</li> </ul>
Entrepreneurial resource provi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및 벤처 투자사</li> <li>• 은행권</li> <li>• 연구기관(대학)</li> <li>• 인큐베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접근성</li> <li>• 인적 역량</li> <li>• 지식 창조 및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젤 및 자산 투자</li> <li>• 차관/융자</li> <li>• 인재 양성</li> <li>• 지식 창조</li> </ul>
Entrepreneurial conn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유관 협회</li> <li>• 기업가 동호회(clubs)</li> <li>• M&amp;A 중개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여건</li> <li>• 인적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병목 자료</li> <li>• 시장 연결</li> <li>• 재정 지원</li> </ul>
Entrepreneurial nurtur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li> <li>• 언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문화</li> <li>• 인적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 양성</li> <li>• 인식 제고 캠페인</li> </ul>

## 4)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 OECD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LEED Programme)

- (개요)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 및 국가 정책 이행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우수사례 공유 및 자료
- (기업가정신 및 창업) 6가지 주력 분야 중 '기업가정신'이 포함,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대상 사례 분석 자료 제공
- (세부 프로그램 예시) 사회적 포용성 제고 및 기업가 교육·훈련에 집중
- (Entrepreneurship for All) 여성,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장벽 해소를 위한 OECD 회원국 대상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7) ASEAN 사무국(2020). "ASEAN Guidelines on Fostering a Vibrant Ecosystem for Startups across Southeast Asia."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8/ASEAN-Guidelines-on-Fostering-a-Vibrant-Ecosystem-for-Startups-across-Southeast-Asia.pdf>.

-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llaboration and Engagement, EECOLE) 고등교육 기관과 산업계, 금융계, 정계,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제공

## 나. 주요국

### 1) 미국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지역 및 산업) 미국 스타트업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꾸준히 제1위의 투자 집중 산업이며, 그 뒤를 바이오·계약이 뒤쫓고 있음. 실리콘밸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서부와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 인재 및 투자자가 집결된 생태계의 대표 사례
- (정부 주도) 오바마 정부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혁신국 신설 등 스타트업 산업전략을 정부가 주도, 산하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 정책환경

- (자금지원) 스타트업 전담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SIB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적으로 Impact Investment Fund 및 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각 10억 달러씩 조성하여 스타트업 지원 중
- (혁신 가속화) △스타트업 투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 영구 감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과학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스타트업 출신 거대 IT기업들의 재투자 활발) 미국 5대 IT기업(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420개 스타트업 회사에 대형 투자
- (비영리단체를 통한 멘토링·교육 제공) 경영자·벤처투자자·대학·연구재단 등으로 구성된 ‘Start Up America Partnership’을 통해 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교육 지원

### 2) 영국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런던의 ‘테크 골드러시’) 런던의 기술 붐을 이끈 주요동인 중 하나로 특히 후발 투자(follow-up investment)가 늘고 있음

- Megarounds(1억 달러 이상의 투자 라운드)는 2021년 런던에서만 3배 증가하면서 표준화되는 추세

- **(정부 주도)** 영국 정부는 2010년 런던 동부지역에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벤치마킹한 핀테크 및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인 테크시티(Tech City)를 조성

[표] 테크네이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명	지원 자격	혜택
초기단계 (Early Stage)	Founder's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용화된 상품이 있는 디지털 기술기반 영국기업</li> <li>업력 1년~3년, 연간매출 최대 150만 파운드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er-to-Peer 방식 무료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li> </ul>
	Rising Stars		
중간단계 (Mid Stage)	Up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ies A 펀딩을 받은 성장단계 진입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월 과정 워크숍과 멘토링,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li> </ul>
안착 단계 (Late Stage)	Future Fif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년도 500만 파운드 이상 매출</li> <li>2년간 30% 이상 성장</li> <li>영국에 본사가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혜택, 투자유치, 해외사업확장, M&amp;A, IPO 등과 관련 경영 컨설팅</li> </ul>

자료 출처: <https://technation.io/programmes>

□ 정책 환경

- **(미래 산업전략 백서)** 영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5가지 기반과 4대 도전과제를 설정하는 산업전략 백서를 발표, 영국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예시: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BBB Patient Capital을 신설,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감행은 영국산업전략을 활용)
  - ◆ 5가지 기반: 혁신, 인적자원, 인프라, 기업 환경, 지역 발전
  - ◆ 4대 도전과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 선두, 청정성장, 이동 수단 개발, 혁신으로 고령화 사회 대응
- **(스타트업 지원제도)**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중소기업 부문 효율적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영국 비즈니스 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BBB 출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지분 100% 소유. 영국 금융행정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의 감독에서 제외되며 규제자본 보유 의무 없음
  - **(BBB 구조)** BBB는 지주회사체제로서, 정책적·상업적·정부위탁 목적의 3개 주요 자회사가 5개의 사업 부문을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임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영국 정부가 구축한 BBB의 민간금융파트너(100개 이상)는 전통 은행권을 비롯하여 리스회사, 벤처캐피탈 펀드, 온라인 기반 플랫폼까지 포함됨
- BBB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간접 지원하는 사업모델로 특히 지분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단계에 집중함
  - 영국은 유럽 전체 유니콘 기업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기술시장을 선도
  - 2019년 5월 기준, 영국의 유니콘 기업 14개 중 4개(29%)가 BBB의 지원을 받았고 분야별로는 Transferwise와 Revolut는 핀테크, Improbable은 VR 시뮬레이션, Graphcore는 AI 반도체 칩 분야임
- **(Seedcamp)** 런던 구글 캠퍼스 내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로 2007년 설립 후 현재까지 약 300개 기업 지원.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특히 초기단계(Early Stage)의 기업 대상 지원에 집중. 파트너 기업으로는 Silicon Valley Bank, Paypal, Google, Amazon 등이 있음
  -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금지원에서부터 작업 공간 제공,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활동 지원

3) 독일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기술창업 중심)** 과거 독일은 기초기술 중심의 범용기술을 주로 지원해 왔으나 연방정부와 16개 州 정부 협조 아래 연방 경제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특수 첨단기술을 중소기업에 장려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함
  - 중소기업 R&D 예산 증액 및 기업 R&D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총 예산액 149억 유로 중 119억 유로가 17개의 첨단기술 개발 및 확산 지원에 사용
  -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HTS) 수립
- **(창업 관련 법적 제도 완화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08년 11월부터 Unternehmergeellschaft(혹은 Mini-GmbH)라는 기업 유형을 도입, 설립자본 1유로로 유한회사 설립 가능한 제도 마련
  - 창업기업이 독일 내에서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자이나, 과세 대상 거래가 창립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독일 ‘소규모기업규정’에 따라 부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정책환경

- (정책자금) 2021년 6월 독일 정부는 1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성장단계(Growth stage)에 있는 스타트업 중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기업에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
-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환경보호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로켓인터넷) 유럽 유니콘의 25%를 배출한 독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로켓인터넷은 기존 성공한 혁신기업을 사업모델로 모방하여 시행착오 비용과 실패 가능성을 줄여서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복제 전략 구사
- (실리콘 엘리) 2011년 2월 베를린 스타트업 밋업(Meetup)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현재까지 매월 1회의 밋업을 이어가고 있음. 베를린에서 영어로 진행된 최초의 밋업 이벤트. 실리콘 엘리 캠퍼스 주변에는 10여 개의 VC와 35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 코워킹 스페이스 보유
  - (입주기업) : Here, Strip, BIGCHAIN, ocean, Klara, Point Nine(엔젤 VC)

4) 프랑스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제도적 지원) 프랑스는 2018년 5월 프랑스를 스타트업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French Tech Visa 정책을 도입, 프랑스가 기존에 강점을 지닌 산업의 성장과 新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Industrie du Futur) 프로젝트 시행

French Tech visa

- 취업-비즈니스 비자는 대략 15일 이내에 후보자 출신국의 프랑스 영사관에서 배부, 체류증(4년) 취득할 수 있으며 갱신 가능 (모든 절차 간소화)
- 배우자도 특별한 절차 없이 취득 가능하며 프랑스 내 취업 가능
- 전 세계 인재를 프랑스 정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 정책환경

- (‘프랑스 2030’) 2030년까지 1,000억 유로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10개의 기술기업 프랑스 내 유치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투자 예산 편성
  - 혁신기술 기업 대상 50억 유로 포함 총 150억 유로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

- (프렌치 테크 티켓) 해외 스타트업들의 프랑스 정착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정책. △신속한 프랑스 체류 비자 행정처리 △보조금 지원 △41개 인큐베이터 시설 접근성 제공
  - (지원대상)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를 가진 기업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창업 클러스터) ①파리-샤를레이 클러스터(Cluster Paris-Saclay) ②갭디지털(Capdigital) ③스테이션 F(Station F) ④ 에콜 42(Ecole 42) 등의 창업클러스터가 구축
- (주요 액셀러레이터) ① 파리엔코(Paris&Co) ② 창조밸리(Creative Valley), ③ CA 빌리지(Le Village by Credit Agricole)
- (1쿠바토르) 1쿠바토르(1Kubator)는 프랑스 최고의 혁신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로 2015년 출범한 이후 9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성장시킨 이력 보유
- (파트너 50) 프랑스 기반 벤처캐피탈사이자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멘토링, 자금 조달, 해외시장 연결, 전문가 네트워킹 및 사무실 공간 제공
- (유라테크) 2009년에 설립된 유럽 3대 액셀러레이터. 매년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와 500개 이상의 네트워킹 이벤트 주최

5) 아일랜드

□ 벤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 (개요) 아일랜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15위, 유럽 9위, EU에서 7위 등 비교적 안정적이며 더블린(Dublin)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우 타이페이, 헬싱키, 마드리드를 제치고 46위에 안착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주력) 아일랜드의 창업 생태계의 주류는 에너지와 환경 산업이고 이는 전세계 11위에 해당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665개의 스타트업 중 66%에 해당하는 441개가 집중. 에너지와 환경, 보건, 소프트웨어, 데이터 스타트업이 주요 산업
- 더블린에는 118개의 에너지 환경 스타트업과 63개의 보건 스타트업, 59개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스타트업이 활동 중

[표] 아일랜드 주요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구분	분야	개요
The Yield Lab Europe	Agriculture, AgTech, Aquaculture, Farming, Venture Capital	Yield Lab Europe is the leading early-stage investor in Agri Food and Ag Tech startups that are revolutionizing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Dogpatch Labs	Coworking	Dogpatch Labs is a selected startup hub in the Digital Docklands of Dublin
The Pearse Lyons Accelerator	AgTech	The Pearse Lyons Accelerator is a three-month program for ten agritech and agricultural science entrepreneurs
NadiFin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FinTech, Machine Learning	NadiFin is a FinTech accelerator program for early-stage companies
LaunchBox	Advice, Business Development, Tutoring	LaunchBox is a three-month accelerator program for Trinity student teams (undergrad and postgrad)

자료 출처: StartupBlink, <https://www.startupblink.com/startup-ecosystem/dublin-ie>

## 6) 스웨덴

- (글로벌 시장 진출 활발) 우리나라보다 투자 규모는 작지만 성장 후 단계에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 특히 M&A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들이 인수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천만 명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미국 다음으로 인구 1인당 최대 유니콘 스타트업을 보유
- (3S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특화) 스웨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확장 친화적(scalable)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청정기술, 소셜벤처,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이 주를 이룸

## 7) 중국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BAT 사례로 인한 창업 붐)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시작으로, △드론 △의료 △공유자전거 등의 스타트업 성공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창업이 확산하고 있음

- (창업 형태8) 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창업 분야 중점의 창업 형태로 △차량 공유 서비스 △금융 △기업 서비스 △의료·건강 △전자 상거래 순의 비중을 차지함
- (창업 생태계 글로벌 위상 제고)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13년 35위에서 '19년 14위로 급상승,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베이징이 3위, 상하이 8위 기록
- (유니콘 기업9) 후룬 리포트(Hurun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총 494개 중 중국 기업은 206개로, 203개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 ('19년 10월 기준)
  - ◆ (중국 유니콘 기업의 업종 및 대표기업) △핀테크 △AI △헬스케어 등의 온라인 플랫폼 및 첨단제조업의 형태 위주, 대표기업으로는 '앤티파이낸셜', '디디추싱', '샤오미', '진르터우타오' 등이 있음

### □ 정책환경

- (창업 생태계 마스터플랜 수립) 중국은 '15년 3월부터 다수의 개인에 의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창업 확산을 통한 경제 혁신을 도모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이하 '쌍창')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함

###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창업 생태계 구축지원)10) 중국은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된 대학·연구소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대학 내 창업지원 지휘부의 신설을 통해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사업화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표]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기관 및 인큐베이터

회사명	지원대상	역할 및 주요 지원내용
Shanghai Technology Entrepreneurship Foundation for Graduates	본과 4학년 이상의 재학생, 8년 이내의 졸업생, 신청인이 중국 국적이며 기업 주소지가 상하이에 있는 등 조건에 따라 지원 내역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창업문화 전파, 창업을 지원하는 공익 기관</li> <li>◆ '06~'18년 2,123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li> <li>◆ 투자인, 전문가 등과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계획에 대해 논의 및 협력하는 훈련을 매년 6회 진행</li> </ul>
상하이과학기술창업센터	스타트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도 기준 100여 개의 기업을 양성</li> <li>◆ 스타트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창업 교육 관련 자문 제공</li> <li>◆ 과학기술 관련 스타트업 대상 대출</li> </ul>

8)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중국'

9)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10)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중국'

## 8) 일본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투자유치 확대)<sup>11)</sup> '21년 일본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모는 1조 1,888억 엔이며 투자유치 기업 수는 1,582개를 기록함
  - '20년 대비 '21년 투자유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기업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소수 기업에 자금이 집중 (평균 약 5.6억 엔)
  - '21년 100억 엔 이상의 투자 규모를 유치한 기업의 분야는 △IT서비스 △SaaS(Software as a Service) △공유경제 △친환경 소재 △우주·항공 등

### □ 정책환경

- (일본 재흥 전략)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세부 정책인 '일본 재흥 전략'을 '16년 수립하고 일본경제 재건을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
  - (기업 응원 세제) 창업 비용으로 최대 200만 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 부여
- (J-Startup)<sup>12)</sup> 일본 스타트업의 질적 향상과 우수사례 형성을 위해 '18년 6월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협력 시행
  - 일본 내 약 10,000社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J-Startup 기업으로 브랜드화 및 집중지원

###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일본은 주기적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함

[표] 일본 스타트업을 위한 주요 액셀러레이터

명칭	특징
MOVIDA JAPAN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시부야) 기반 대표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li> <li>•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1,000개 스타트업 육성 및 1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li> <li>• 액셀러레이팅 분야: 모바일 및 ICT,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li> </ul>
OnLab (Open Network Lab,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시부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li> <li>• Data, 디자인, 개발, 사업화를 강조</li> <li>• 창업 2년 미만 극초기 스타트업 육성</li> </ul>
Startup Club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rtup Club 글로벌네트워크 일본지사</li> <li>• Startup club Japan은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Feedback, Partnership&amp;Connection, Funding 등의 네트워킹 중심의 지원을 제공</li> </ul>

11) 김소정, '2021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일본 스타트업 5곳', Kotra해외시장뉴스(2022.03.2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

12) KIEP(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9) 인도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인도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등으로 지식 인프라 및 우수한 인력 풀을 구축해옴
- (3대 도시)<sup>13)</sup> 인도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거점도시인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에 집중. '10~'19년 사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수는 각각 4,373개, 3,495개, 2,707개
  - (벵갈루루) IT·공학 중심 미래기술 분야에 강점
  - (델리) 정부기관 및 주요 인프라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장점
  - (뭄바이)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우수한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 및 인큐베이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 정책환경

- (Start-up India)<sup>14)</sup> 인도 정부는 '16년부터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지원 전담 조직(Startup India Hub)을 신설해 스타트업 맞춤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함
  - (배경) 창업 규모는 세계 3위를 기록하지만 열악한 기업 환경으로 인해 생존율은 10%를 하회. 인도의 복잡한 규제 및 세제, 불안정한 R&D 환경 등을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목적)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둠

## 10) 베트남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디지털 서비스 기반 창업의 확대)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부분 분야에서 비대면 형태가 확산하여 전자상거래, 에듀테크, 핀테크 부문 등에 대한 신규 소비자 유입이 증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이 가속화됨
  - (핀테크)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는 '17년 67개에서 '19년 6월 기준 120개로 증대, △모바일 결제(payment) △P2P 금융 △블록체인 순의 창업 분야를 형성함
  - (모바일 인터넷) '17년 베트남 스타트업 수는 약 2,000개가 되며 특히 O2O(Online To Offline) 소비 추세가 확산함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

13) KIEP(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14) KITA(2018), IIT TRADE FOCUS 54호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 정책환경

- 베트남 정부는 '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위해 '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Initiative for the Startup Ecosystem in Vietnam until 2025, ISEV-National Program 844)<sup>15)</sup>를 수립
  - (National Project 844 목표) △스타트업 창출·성장애의 유리한 환경조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개선 △ 국가 스타트업 포털 생성 등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부처 지원)<sup>16)</sup>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스타트업 조직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담당부처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
  - 연간 행사 개최,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시

11) 인도네시아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디지털경제 기반 창업환경) '20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산업 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반의 소비문화, 콘텐츠 이용,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이 확대됨
  - 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구매력 지수<sup>17)</sup> 경제 규모 세계 7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간('15~'20년) 디지털 분야 경제성장률 41%로 동남아시아 내 1위를 기록함
- (데카콘·유니콘 기업)<sup>18)</sup>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운송 수단, 전자상거래, 핀테크 분야에서 데카콘\* 및 유니콘 기업이 출현
  - \* 데카콘 기업: 평가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 '22년에도 비대면 서비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분야 등의 잠재적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함
- (주요 분야별 동향)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는 △물류 △전자상거래 △에듀테크(Edu-Tech) 등이 있음

15)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베트남'

16) KIEP(2022),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발전 전망'

17) 전규열, "핀테크-이커머스로 창업 강국 된 인도네시아", 주간경향 1472호(2022.04.11.)

[http://weekk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http://weekk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 (접속일:2022.08.25.)

18) CB insights (2021.12.)

□ 정책환경

- (스타트업 성장 한계)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 설립 이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은 '19년 기준 5%, '20년 기준 10%를 하회. 정부는 시장 성장에 만 중점을 두어 스타트업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태
  - 디지털 시장의 확산으로, 시장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시행이 주를 이루며 전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주도 혁신센터 운영)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는 '16년부터 1,000개의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 10개 도시<sup>19)</sup>에 공유 오피스, 멘토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12) 싱가포르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핀테크 분야 활성화) 세계 금융 동향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른 디지털·모바일화가 요구되며 이에 금융과 IT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됨. 싱가포르는 팬데믹 이전인 '17년 딜로이트 '글로벌 핀테크 허브 지수<sup>20)</sup>에서 런던과 더불어 최상위권으로 선정됨<sup>21)</sup>
- (Tech Start-up의 성장)<sup>22)</sup> 싱가포르의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21년 상반기 53억 달러(SGD) 투자금을 유치(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억 달러(SGD) 증가)하며 3개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함

□ 정책환경<sup>23)</sup>

- (스마트네이션) '14년 싱가포르 정부는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시행

19) 자카르타, 방동,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스마랑, 말랑, 메단, 발리, 마카사르, 폰타야낙

20) 핀테크에 우호적인 환경일수록 지수 값이 작게 나타남. 싱가포르와 런던은 각각 11 값을 가짐

21) KITA(2018),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22)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스타트업(Startup) 관련 최근 동향'(2021.08.13.)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3408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3408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속일:2022.08.26.)

23) 최혜진,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Kotra해외시장뉴스(2018.01.0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 (접속일:2022.08.26.)

-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 관련 개발 및 실험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마련

-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유지 및 관리 부문 등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도입함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주도 창업지원)<sup>24)</sup> 싱가포르는 자국 내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네거티브 규제 적용, 신기술 적용하기 용이한 환경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년 기준 'Startupsg'에 등록된 스타트업 수는 3,416개이며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는 145개가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시사점

- (동남아시아 산업구조의 지각변동)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기술의 일상 적용 가속화 및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모바일 중심 시장에 진출·투자하는 양상을 보임
  -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 설립을 장려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 자금난, 불안정적 운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 (미국의 IT 스타트업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역사가 깊은 서부 실리콘 벨리 포함, 동부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美정부의 안정되고 꾸준한 스타트업 산업 육성 전략, 우수 대학의 혁신 연구·개발, 그리고 거대 IT기업 및 전문 벤처 투자사 간 'R&D → 투자 → 창업 → 성장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EU권의 체계적 스타트업 육성) 영국의 테크네이션, 독일의 엑지스트 창업 정책은 집중 지원 분야 선별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공통 특징이 있음.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인재 양장으로 소비되어 특화된 기술 및 산업(IT 첨단산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점이 있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민간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가 지속됨이 특징
- (북유럽 국가의 낮은 스타트업 진입장벽)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업 친화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대두됨

24) KOCCA(2020), '2020 싱가포르 특화보고서 - 시장분석보고서'

### 3.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 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창업 생태계 현황

##### 1) 창업 생태계의 규모 변화<sup>25)</sup>

- '00~'22년 기간 신설법인 수 61,456개 → 123,305개로 약 2배 증가

[그림] '00~'20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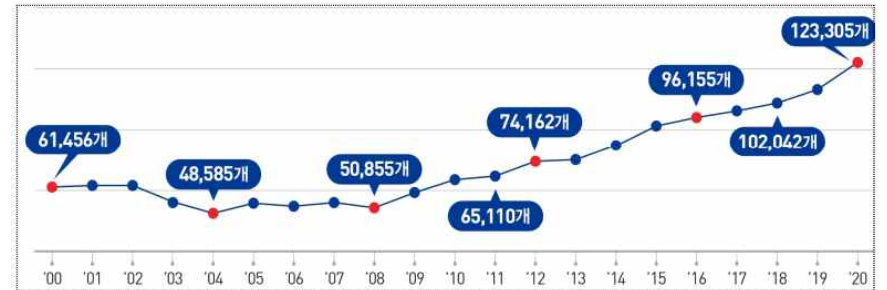


그림 출처: 신설법인동향 및 창업기업동향('00~'20)

- 창업기업 역시 증가 추이, 기술기반 창업은 22만 건 돌파

[그림] '16~'20 연도별 기술기반 창업기업 추이



그림 출처: 창업기업동향 ('16~'20,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을 합한 전체 창업기업 통계)

25)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 2)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 □ 한국 유니콘 기업 급증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 상승

-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16년 2개에서 '20년 13개로 급등

[표] 연도별 유니콘 기업 현황(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니콘 기업	2	3	6	10	13

- 스타트업 지놈 (Startup Genome)의 '20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결과('20.6), 조사대상 270개 도시 중 서울이 처음으로 순위권인 20위 진입 서울 순위 : ('17) 순위권 (30위) 밖 → ('19) 순위권 (30위) 밖 → ('20) 20위

### 3) 정부의 창업생태계 기여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예산 급증

- 창업지원 예산은 '98년 최초 82억 원을 편성한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대부분 성장이 이루어짐
  - '20년 창업지원 예산은 8,492억 원으로 '10년 예산 1,439억 원 대비 약 7천억 원(7,0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약 6배 (5.9배)에 달하는 수치
  - '20년(8,492억 원)은 '16년 (3,766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10년간 증가한 예산 7천억 원의 2/3 수준 (4,726억 원)

#### □ 부담금 면제, 세제부담 완화 등 창업 정책 개선

- (부담금 면제) '18.12월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종류를 대폭 확대 (기존 12개 → 변경 16개, 4개 추가)
- (세제부담 완화)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시 공제 비율 확대('18)
  - 100% 공제 : ('15) 1.5천만 원 이하 → ('18) 3천만 원 이하
  - ('15) 1.5천만 원 ~ 5천만 원 50% 공제 → ('18) 3천만 원 ~ 5천만 원 70% 공제
- (창업비자제도 확대) 해외 기술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과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술창업비자 및 준비비자 취득방법 확대
- (공공구매제도 도입)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규 도입('20.10), '21년부터 본격 시행
  -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8%)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

### 4) 주요 분야별 사업화 모델 변화

####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융합현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비중확대(공유경제와 코로나19) 비대면 분야, O2O 기업의 성장 가속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 기반 스타트업의 비중 확대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주로 연계된 응용 품목 분야는 '전문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바이오·헬스케어' 순으로 나타남
- 비대면 쇼핑, O2O 등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플랫폼-서비스·상품 중개'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
- 가상 융합현실(XR) 스타트업의 재조명
  - '10~'12년, 현실에 가상정보를 덧입히는 AR과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VR 중심으로, '가상융합기술-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이 강세
-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비중 확대
  - 4차 산업혁명의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은 '14년부터 사업화 모델로 주목받은 후, 홈 라이프·전문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비중 확대

### 5)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특징과 성과

#### □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 및 고용

- (매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09. 2.96 → '19. 6.07억 원)
- (고용) 평균 고용인원은 지난 10년간 약 1.8배 확대 ('09. 3.9 → '19. 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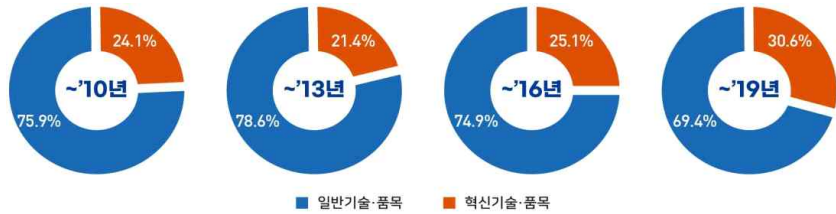
#### □ 혁신 창업기업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매출·고용 성과 우수

- '09~'19년 기간, 혁신 분야와 일반 분야 창업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 분야 창업기업이 일반 분야 대비 성과 우수
  - '19년 기준, 혁신 분야의 고용은 8.2명으로 일반 분야 6.6명 대비 24%, 혁신 분야 매출은 6.34억 원으로 일반 분야 5.95억 원 대비 6% 높게 나타남

#### □ '19년도 혁신 창업기업 비중은 최저점인 '13년도 대비 40% 상승

- 혁신 분야 창업기업 비중은 '13년까지 감소추세, '14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17년부터 혁신비중 증가가 가속화되어, '19년에는 최저점인 '13년 대비 143% 수준 도달

[그림] 혁신 창업기업 비중



□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기업보다 우수

- 중기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전체 창업기업 대비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1년차 기업은 생존율이 약 1.5배 (1.45배)이며, 창업 5년 차에는 생존율이 약 2배 수준 (1.83배)으로 높게 나타남 (생존율 차이 30%p 수준)

나. 한국의 창업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1~2023)<sup>26)</sup>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 혁신·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분야 창업기준 및 범위 신규 마련 (중기부 고시, '22)
  - 신산업 창업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 시책 수립 (예산 40% 이상 우선지원, 보육공간 입주 우대 등)
- 혁신 분야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수단 연계 지원
  - (보증) 청년·초기 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 확대 및 우대 지원
  - (기술개발) 투자형 R&D, 후불형 R&D 등
  - (인력)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개발인력 공급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 스타트업 주도의 상생 기반 성장 및 글로벌화 촉진
  -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① 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 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본격 운영 ('21~)

26)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년~2023년)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의 분야별 강점을 활용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 확대 ('21.하~)
- 해외 자원 및 거점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화 촉진
- ◆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 기능 강화 및 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확대, 해외실증 (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창업 붐 확산

- 'کمپ'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여, K-스타트업 및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강화 (매년 11월경)
-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 부처를 확대 ('20. 7개 → '21. 10개) 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

○ 기업가정신 확산 및 미래 창업인재 양성

- 고교학점제 시행('25)에 대비, 잠재적 혁신창업가 양성 및 창의인재 교육을 주도할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2천명 양성' (~'24)
- '창업교육 거점대학'('21년 2개)을 중심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대학 간 창업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대학 창업 인프라 공유

시사점

- (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90년대부터 '00년대 초반 벤처 붐으로 인해 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장려 및 지원 정책으로 관심도는 지속 상승하였으며, '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스타트업, 특히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의 수요가 부상
  - (혁신 스타트업의 차별성) 이는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체 사회(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벤처기업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보임
  - (유니콘) '유니콘'이라는 키워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논의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됨
- (창업 생태계의 역할에 대한 민관의 인식변화) 신생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변모하면서 한국 사회가 스타트업에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정책적 지원의 초점이 이동하는 추세
  - (사회·경제적 역할) 제조부품의 공급사 역할이 컸던 '90년대 스타트업 대비 최근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온라인·모바일 시대 혁신 서비스 제공자)이자 청년 일자리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책적 지원) 기존 법인세 감면과 대출 조건 완화 등이 주를 이뤘던 창업 지원 정책은 최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네트워킹 플랫폼 지원,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 공간 제공 등 그 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



#### 4. 결론 및 정책 제언

- **(국가전략기술·산업 육성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정책금융의 설계가 중요
  -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의 적정규모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정책 목적과 상업적 이익 간의 균형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 것인지 결정 필요
- **(성장의 전 단계에서 병목 없는 지원 필요)**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필요
  - IPO에 대한 회수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 유럽과 마찬가지로 후기투자·대형라운드 자금 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공공 구매는 수요자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동인을 제공하므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정부 대형 프로젝트에 스타트업 참여 의무화 필요
-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강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해외 인제·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보하는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고, 유럽은 범국가 차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자국 외 국가대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며, 동남아시아는 중산층 확대, 모바일 경제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한계로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개선)** 우리나라는 창업률은 높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수준으로, 생존율이 낮을 경우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과 경제에 미치는 혁신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
  - 낮은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 비중 확대, 미래성장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
-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모형 제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준에 의해 개별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기업군의 특성(공통점과 유사점)과 마일스톤 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법칙 발견 필요
- **(단계별 창업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준에 의해 개별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기업군의 특성(공통점과 유사점)과 마일스톤 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법칙 발견 필요
- **(폐업에 대한 지원)** 기업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민간 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전에 관한 지원 확대 필요

#### 5. 기타 경제 동향<sup>27)</sup>

- 중국 7월 경제 지표 발표 (8.15 국가통계국)
- 중국 인민은행, LPR(대출우대금리) 인하
- 동티모르-UN, 플라스틱 폐기물 퇴치를 위한 새로운 협약 완성
- 말레이시아 최근 경제 동향
- 베트남 최근 경제 동향
- 인도네시아, 7월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 캄보디아 최근 경제 동향
- 네팔 최근 경제 동향
- 뉴질랜드 최근 경기 동향
- 방글라데시 대외 부채 및 외국 원조 동향
-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 동향
- 인도 최근 경제 동향
- 미국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캐나다 경제·통상 동향
- 도미니카공화국, 하반기 경제성장률 5.3% 달성 전망
- 브라질 최근 경제 동향
- 러시아 최근 금융시장 동향
- 벨라루스 최근 경제 동향

27) 상세내용은 본문 62페이지 참조.



## II. 동향 조사

### 1. 동향 조사 개요 및 범위

#### 가. 조사 배경 및 범위

-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주도하는 스타트업,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성 증대
  - (세계 경제에의 함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비중 있는 영향을 주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상존 과제)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스타트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부의 활발한 창업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과제로 상존
    -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적극 해외 진출이 필요

#### □ 한국 스타트업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국별 창업 생태계 이해 필요

- (국별 스타트업 생태계 파악 필요) 한국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스타트업 및 창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
- (지역별 상이한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가, 투자, 지식 인프라, 인적자본,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각국의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상이

#### □ 동향 조사 범위

- (공공 영역) △국제기구와 아시아·유럽 역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입안자를 위한 창업, 기업가정신 촉진 가이드라인 및 행동 계획 등 조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선도국가 및 아시아·유럽 국가의 창업,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 동향 조사
- (민간 영역) 조사 국가별 운영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기관 조사
  - 각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거나,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임에도 민관협력이 필수 전제조건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스타트업·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민간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

### 나. 스타트업 생태계 개요

#### □ 용어정리

- (창업 및 스타트업) 창업은 중소기업(개인, 법인 포함)을 새로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기업을 통칭
- (스타트업 생태계) 암묵적으로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 지원 및 촉진 생태계를 의미하며, 창업 생태계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

#### □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

- (개요) 통상적으로 창업 관련 정책, 금융 구조, 문화, 자원, 시장 구조로 구성
- (Startup Genome<sup>1)</sup>) 성과(performance), 자금(funding), 연결성(connectedness), 시장(market reach), 지식(knowledge), 인재(talent and experience)로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를 평가

[그림 1] Startup Genome의 생태계 평가항목 및 2022년 순위

	Overall Ranking	Performance	Funding	Connectedness	Market Reach	Knowledge	Talent + Experience	Change in ranking from 2021
Silicon Valley	1	10	10	10	10	10	10	0
New York City	2 (tie)	10	10	9	10	5	10	0
London	2 (tie)	9	10	10	10	6	10	0
Boston	4	10	9	8	9	7	9	▲ +1
Beijing	5	10	8	3	9	10	10	▼ -1
Los Angeles	6	9	10	7	9	7	9	0
Tel Aviv	7	9	8	10	10	6	8	0
Shanghai	8	9	6	1	9	10	9	0
Seattle	9	8	7	6	8	8	8	▲ +1
Seoul	10	7	9	7	5	8	7	▲ +6
Washington, D.C.	11	8	6	8	7	3	8	0
Tokyo	12	5	8	1	4	9	9	▼ -3
San Diego	13	8	4	3	8	7	6	▲ +8
Amsterdam-Delta	14	5	7	10	6	1	7	▼ -1
Paris	15	1	8	7	1	1	8	▼ -3
Berlin	16	6	7	8	4	1	6	▲ +6
Toronto-Waterloo	17	1	9	9	3	1	7	▼ -3
Singapore	18	1	9	4	8	1	5	0
Chicago	19	4	6	5	6	1	7	▼ -4
Sydney	20	7	5	6	5	1	5	▲ +4

Factors scored 1 to 10, with 1 the lowest and 10 the highe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Methodology.

그림 출처: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https://startupgenome.com/reports/gser2022>

- (Startup Blink<sup>2)</sup>)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창업환경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를 발표
  - 양적 평가: 창업기업 수, 엑셀러레이터 수, 공유 오피스 활성 정도 등
  - 질적 평가: 기업 규모, 연구기관 활성화, 출구 전략 행태, 창업 컨퍼런스 주최 등
  - 창업환경 평가: 다양성, IT 인프라, R&D 투자, 신규 특허 수, 우수 대학 밀도 등

1)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정보분석기관

2) 이스라엘 기반 창업·스타트업 연구조사기관

[그림 2] Startup Blink 발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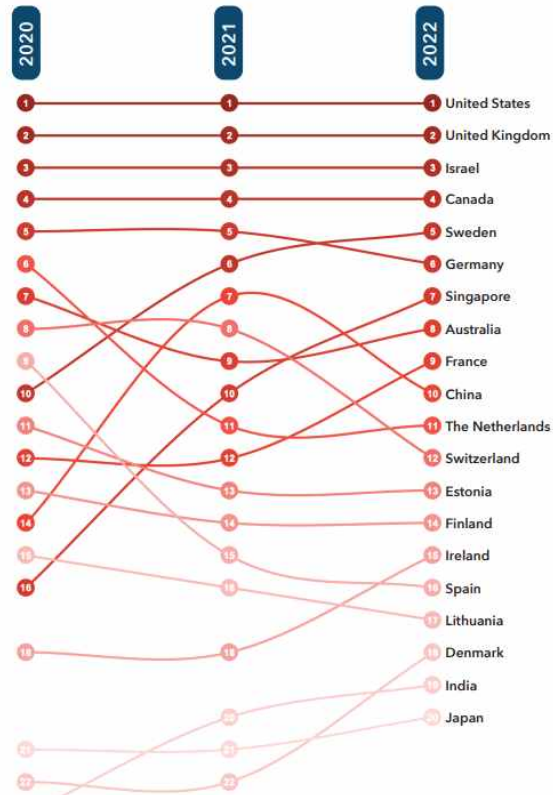


그림 출처: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https://www.startupblink.com/startupecosystemreport>

시사점

-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국별, 또는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를 평가, 그 순위를 연례 발표하는 대표적 조사기관별로 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지표 설정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R&D → 투자 → 창업 → 성장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 정도를 다양한 지표로 측정·정량화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선별하는 추세
- **(한국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한국은 정부의 활발한 창업 촉진 및 지원 정책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사업모델 확장과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및 신생기업 경영환경 글로벌화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선도 필요

2. 아시아-유럽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동향

가.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1)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기업가정신 정책 프레임워크 및 이행 지침'<sup>3)</sup>
  - **(목적)**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목적의 정책, 프로그램, 전담 기관 설계 지원
  - **(구성)** 효과적인 스타트업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전략의 범위 내 관련 정책 분야 프레임워크를 구조화
    - **(특징)**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가정신 국가 전략'이 아직 부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을 위한 가이드라인 포함

[그림 3] UNCTAD '기업가정신 정책 프레임워크' 전략 분야



그림 출처: UNCTAD. <https://unctad.org/topic/enterprise-development/entrepreneurship-policy-hub>

3) UNCTAD(2012). "Entrepreneurship Policy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Guidance."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

- (우선순위 지원 분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규제 환경 최적화 △기업가정신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기술교류 및 혁신 촉진 △재정 접근성 개선 △인식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그림 4] UNCTAD '기업가정신 정책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지원 분야



그림 출처: UNCTAD. <https://unctad.org/topic/enterprise-development/entrepreneurship-policy-hub>

□ UN Foundations GEC<sup>4)</sup>(Global Entrepreneurs Council, 유엔재단 기업가정신 협의회)

- (개요) UN 재단 주도의 기업가정신 협의회(GEC)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상위목표로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체
- (구성) 전략적 자문 협의회 형태로 각국의 기업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필두로 △여성,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멘토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협력 장려 프로그램 운영
- (대표 이니셔티브) 디지털 사회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 내 혁신적인 민간-UN 협력 이니셔티브의 안정화, 도약, 규모 확대를 위한 초기투자 진행

[그림 5] UN GEC의 대표 지역 기반 민간-UN 이니셔티브 초기투자 현황



그림 출처: UN 재단. <https://unfoundation.org/what-we-do/initiatives/>

4) UN Foundations 웹사이트. "Global Entrepreneurs Council." <https://unfoundation.org/what-we-do/initiatives/global-entrepreneurs-council/>

□ UN-SPBF(Science-Policy-Business Forum, 유엔 과학-정책-비즈니스 포럼) 'Green Technology Startup Initiative'<sup>5)</sup>

- (개요) UNEP(유엔 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가 진행하는 본 포럼의 '녹색기술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도모
- (활동) △진 세계 녹색기술 분야 스타트업 관련 민간, 공공 행위자 간 소통 창구 마련 △혁신을 위한 촉진 정책 및 행동 계획 도출 △녹색기업 창업 사례 공유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안 마련
  - (녹색기술 스타트업 마라톤) 글로벌 녹색기술 스타트업 창업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정책가 초청, 녹색기술의 산업 주류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기업가정신 행동 계획 2020<sup>6)</sup>

- (개요) 유럽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 견인을 목적으로 기업 문화 혁신, 규제 개혁 등 관련 청사진 제공
- (배경) 신생 및 중소기업의 높은 고용 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개발도상국 대비 EU 회원국의 신생·중소기업은 성장 속도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 대두
  - (창업문화)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창업문화의 상대적 저발달 타개를 상위목표로 선별,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우선순위로 설정
- (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활성화 △신생기업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신사업 발굴 △출구 전략 및 구제 안전망 다양화 △우수사례 연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업가정신 조기 교육) 중등교육 과정에 모의 창업 프로그램 지원
  - (금융 접근성) EU 집행위원회,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sup>7)</sup> 내 신기술 시범 사업, 벤처 캐피탈 및 엔젤 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잠재 중소기업 대상 대출 증대 등 제안
  - (구제 안전망) 범법·편법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금난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정직한 부도'(honest bankruptcy)의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산 및 채무 구제 방안 도입

5) UN-SPBF 웹사이트. <https://un-spbf.org/>

6) EC(2013).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 Reignit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Europ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3A2012%3A0795%3AFIN%3AEN%3APDF>

7) Programme for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COSME).

□ EU 스타트업 국가 규범(EU Startup Nations Standard, SNS)<sup>8)</sup>

- (개요) 본 규범 도입을 통해 EU 회원국의 스타트업 친화적 환경 조성 도모, EU 역내를 창업 및 스타트업 규모 확장의 허브로 육성
  - (배경) COVID-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EU 역내 소규모 신생기업의 경영악화 대응
  - (절차) 서명한 EU 회원국은 일정 유예 기간 이후 규범 내 지침의 점진적 도입을 이행해야 '스타트업 국가' 인증 취득
  - (서명국)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외 EU 회원국 모두 서명
- (한계)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규범의 각 서명국 국내법 입안 과정이 필요
- (주요 내용) 소규모 스타트업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 비시민권자 고용인 대상 스톡옵션 제공
  - EU 역외 시민권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가 대상 비자 발급 간소화
  -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온라인 설립 제도 등)
  - 창업 및 경영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공공 입찰 및 조달에 스타트업 우대
  - 대학 및 연구기관 기반 창업 장려 정책 수립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엔젤 투자 세금 감면 제도 수립 등

[표 1] EU 스타트업 국가 규범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창업	•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시장 진입 지원
2	인재	• 非 EU 회원국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3	스톡옵션	• 非 EU 시민권자 대상 스톡옵션 제공 허가 및 세금 유예
4	규제	• 스타트업 대상 법인법 간소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5	조달	• 공공 조달 우대 및 오픈소스 재원 접근 허가
6	금융	• 직접-간접 금융 접근성 제고 및 투자자 세금 감면-유예
7	사회 포용성	• 다양성 촉진 및 민주적 가치 보호
8	디지털	• 스타트업-정책기관(부처) 간 소통 및 교류 디지털화

8) EC(2021). "Declaration on the EU Startup Nations Standard of Excellence," <https://startupnationsstandard.eu/index.html>.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침<sup>9)</sup>

- (개요) ASEAN 회원국 및 ASEAN 중소기업 조정 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MSME)의 스타트업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지역(subnational), 국가(national), ASEAN 역내(ASEAN-regional) 단위별 최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지침 △전략적 우선순위 정책 분야 제안 △기업가 및 신생기업 대상 지속-일관적인 정책 지원 강조
- (ASEAN의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창업 인센티브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로 구성
  - △규제 프레임워크 △인프라 △시장 여건 △금융 접근성 △지식 창조 및 확산 △인적 역량 △창업 문화
  - 스타트업 생태계 내 행위자별 역할 구분을 통해 지침 효과성 제고 시도

[표 2] ASEAN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침 내 행위자별 세부 역할

구분	행위자	유관 생태계 요소	역할
Established entrepreneurial actors	• 대형 기업 • 투자회수 기업가	• 인적 역량 • 금융 접근성	• 멘토링 • 스타트업 투자 • 창업 병목 자문
Entrepreneurial resource providers	• 자산운용 및 벤처 투자사 • 은행권 • 연구기관(대학) • 인큐베이터	• 금융 접근성 • 인적 역량 • 지식 창조 및 확산	• 엔젤 및 자산 투자 • 차관/융자 • 인재 양성 • 지식 창조
Entrepreneurial connectors	• 각종 유관 협회 • 기업가 동호회(clubs) • M&A 중개사	• 시장 여건 • 인적 역량	• 창업 병목 자문 • 시장 연결 • 재정 지원
Entrepreneurial nurturers	• 교육기관 • 언론	• 창업 문화 • 인적 역량	• 기업가 양성 • 인식 제고 캠페인

- (범 ASEAN 잠재 협력 분야 제안) ASEAN 역내 회원국의 협력을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잠재 협력 분야 두 가지 제안
  - (협력 분야 1) 규제 간소화 및 역내 통일
  - (협력 분야 2) 정책 수립 절차 및 사례 공유

9) ASEAN 사무국(2020). "ASEAN Guidelines on Fostering a Vibrant Ecosystem for Startups across Southeast Asia."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8/ASEAN-Guidelines-on-Fostering-a-Vibrant-Ecosystem-for-Startups-across-Southeast-Asia.pdf>.



4)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tee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CSMEET)
  - (OECD 장관급 이사회,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정책 권고안<sup>10)</sup> 채택) OECD CSMEET가 제안한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정책 권고안, '22년 6월 10일 개최된 OECD 장관급 이사회에서 채택
    - (권고안 개요)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기반의 전체론적(holistic) 프레임워크 제시 목적
    - (구성) △정책 조정 및 거버넌스 향상 △중소기업의 탄력적 위기 전환 유도 △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OECD 회원국 대상 세부 정책 권고안 제시
- OECD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LEED Programme)
  - (개요)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 및 국가 정책 이행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우수사례 공유 및 자문
  - (기업가정신 및 창업) 6가지 주력 분야 중 '기업가정신'이 포함,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대상 사례 분석 자료 제공
    - (주력 분야) △고용 △사회·경제 △문화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국제회의
  - (세부 프로그램 예시) 사회적 포용성 제고 및 기업가 교육·훈련에 집중
    - (Entrepreneurship for All) 여성,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장벽 해소를 위한 OECD 회원국 대상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표 3] OECD 'Entrepreneurship for All' 지원 분야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분야		
금융 접근성	교육, 훈련, 멘토링	개인사업자
경영 개발 서비스	평가	실버 창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이민자 유치	실직자 대상 창업 지원
민간 협회	취약계층	여성 창업
기업가 네트워크 및 생태계	규제	청년 창업

-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llaboration and Engagement, EECOLE) 고등교육 기관과 산업계, 금융계, 정계,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제공

10) 원문: Recommendation on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나. 주요국

1) 미국<sup>11)</sup>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지역 및 산업) 미국 스타트업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꾸준히 제1위의 투자 집중 산업이며, 그 뒤를 바이오·계약이 뒤쫓고 있음. 실리콘밸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서부와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 인재 및 투자자가 집결된 생태계가 구축됨
  - (정부 주도) 오바마 정부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혁신국 신설 등 스타트업 산업전략을 정부가 주도, 산하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정책환경
  - (자금지원) 스타트업 전담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SIB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적으로 Impact Investment Fund 및 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각 10억 달러씩 조성하여 스타트업 지원 중
    -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 (혁신 가속화) △스타트업 투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 영구 감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과학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 (멘토링)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등은 공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 있는 멘토 연결 △재향군인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고등교육기관 내 엔지니어링 관련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스타트업 출신 거대 IT기업들의 재투자) 미국 5대 IT기업(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420개 스타트업 회사에 대형 투자
    - 특히, 구글은 스타트업 총 투자 회사 420개 중 79.3%에 해당하는 333개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우버 등 유니콘 기업을 2019년 기준 22개 육성함

11) 서대훈,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그림 6] 미국 5대 IT 기업 스타트업 투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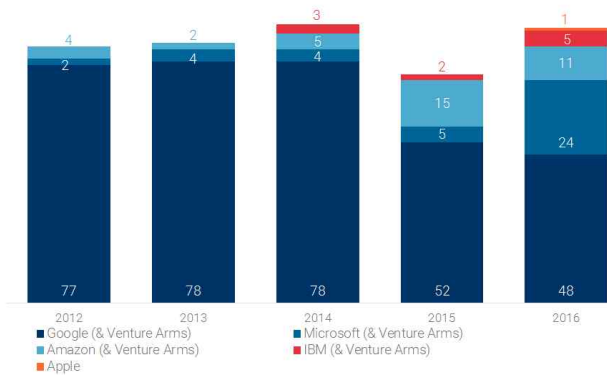


그림 출처: CB insights(2017), "Big 5 Private Market Bets: Google Leads Top US Tech Companies In Investments"

[그림 7] '12~'16년 기간 미국 5대 IT기업의 국가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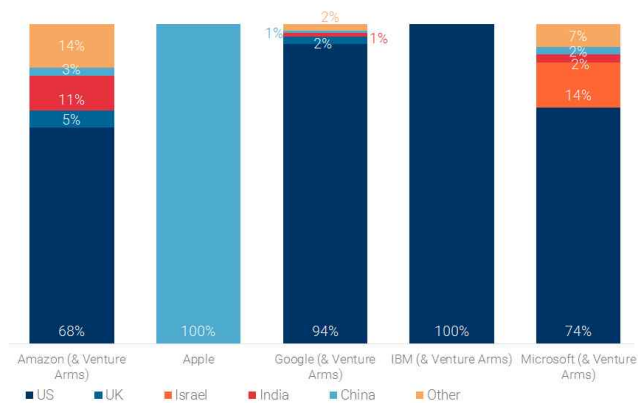


그림 출처: CB insights(2017), "Big 5 Private Market Bets: Google Leads Top US Tech Companies In Investments"

- (비영리단체를 통한 멘토링·교육 제공) 경영자·벤처투자자·대학·연구재단 등으로 구성된 'Start Up America Partnership'을 통해 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교육 지원

## 2) 영국<sup>12)</sup>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런던의 '테크 골드러시') 런던의 기술 붐을 이끈 주요동인 중 하나로 특히 후발 투자(follow-up investment)가 증가 중
  - Megarounds(1억 달러 이상의 투자 라운드)는 2021년 런던에서만 3배 증가하면서 표준화되는 추세
  - 핀테크 기업 리볼루트(Revolut), 청정에너지 공급업체 옥토퍼스(Octopus), 온라인 이벤트 플랫폼 호핀(Hoppin)은 모두 '21년 대규모 자금 조달·투자 라운드 경험
- (정부 주도) 영국 정부는 2010년 런던 동부지역에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벤치마킹한 핀테크 및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인 테크시티(Tech City)를 조성
  - (테크시티, Tech City) 저렴한 임대료 덕에 기술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 이미 자생적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캐머런 총리의 테크시티 조성안 발표 이후 입주 기업 수가 전폭적으로 증가
    - ◆ 2010년 15개社 → 2012년 200여 개社
  - (테크네이션, TechNation) 영국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66만 개 스타트업 설립 효과

[표 4] 테크네이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명	지원 자격	혜택
초기단계 (Early Stage)	Founder's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용화된 상품이 있는 디지털 기술기반 영국기업</li> <li>업력 1년~3년, 연간매출 최대 150만 파운드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er-to-Peer 방식 무료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li> </ul>
	Rising Stars		
중간단계 (Mid Stage)	Up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ies A 펀딩을 받은 성장단계 진입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월 과정 워크샵과 멘토링,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li> </ul>
안착 단계 (Late Stage)	Future Fif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년도 500만 파운드 이상 매출</li> <li>2년간 30% 이상 성장</li> <li>영국에 본사가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혜택, 투자유치, 해외사업확장, M&amp;A, IPO 등과 관련 경영 컨설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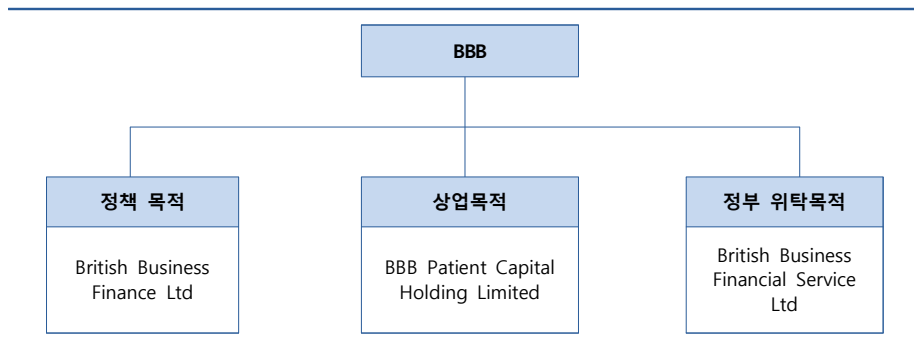
자료 출처: <https://technation.io/programmes>

12) 유지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BBB의 역할, KDB미래전략연구소

□ 정책 환경

- **(미래 산업전략 백서)** 영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5가지 기반과 4대 도전과제를 설정하는 산업전략 백서를 발표, 영국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예시: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BBB Patient Capital을 신설,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감행은 영국산업전략을 활용)
  - ◆ 5가지 기반: 혁신, 인적자원, 인프라, 기업 환경, 지역 발전
  - ◆ 4대 도전과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 선두, 청정성장, 이동 수단 개발, 혁신으로 고품화 사회 대응
- **(스타트업 지원제도)**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중소기업 부문 효율적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영국 비즈니스 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BBB 출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지분 100% 소유. 영국 금융행정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의 감독에서 제외되며 규제자본 보유 의무 없음
  - **(BBB 구조)** BBB는 지주회사체제로서, 정책적·상업적·정부위탁 목적의 3개 주요 자회사가 5개의 사업 부문을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임

[그림 8] BBB의 구조



- **(BBB 단계별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목적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스타트업(1단계), 규모확대(2단계), 선도유지(3단계)로 나누고 가능한 지분 투자와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설계
- **(세계 혜택)** 초기 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한도 내 소득세 50% 감면
- **(멘토링)** 12개월 동안 무료 멘토링 제공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영국 정부가 구축한 BBB의 민간금융파트너(100개 이상)는 전통 은행권을 비롯하여 리스회사, 벤처캐피탈 펀드, 온라인 기반 플랫폼까지 포함됨
- BBB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간접 지원하는 사업모델로 특히 지분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단계에 집중함
  - 영국은 유럽 전체 유니콘 기업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기술시장을 선도
  - 2019년 5월 기준, 영국의 유니콘 기업 14개 중 4개(29%)가 BBB의 지원을 받았고 분야별로는 Transferwise와 Revolut는 핀테크, Improbable은 VR 시뮬레이션, Graphcore는 AI 반도체 칩 분야임
- **(Seedcamp)** 런던 구글 캠퍼스 내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로 2007년 설립 후 현재까지 약 300개 기업 지원.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특히 초기단계(Early Stage)의 기업 대상 지원에 집중. 파트너 기업으로는 Silicon Valley Bank, Paypal, Google, Amazon 등이 있음
  -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금지원에서부터 작업 공간 제공,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활동 지원
- **(Level 39)** 2013년 런던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에 설립된 핀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최근에는 핀테크 외에도 사이버보안, 유통, 스마트 시티 등 최신 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 **(프로그램)** 매월 최소 400파운드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 **(Techstars)** 2006년 설립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세계 150개국에서 1,50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매년 3백여 개의 기업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 Techstars London 지부는 매년 전세계에서 약 10개 기업을 선정
  - ‘Techstars London Accelerator Class’ 운영. Barclays와 협력하여 13주간의 핀테크 기업 전문 육성프로그램인 Barclays Accelerator 프로그램 운영. 3개월간 멘토링 서비스, 작업 공간 제공

### 3) 독일<sup>13)</sup>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기술창업 중심)** 과거 독일은 기초기술 중심의 범용기술을 주로 지원해 왔으나 연방정부와 16개 州 정부 협조 아래 연방 경제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특수 첨단기술을 중소기업에 장려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함
  - 중소기업 R&D 예산 증액 및 기업 R&D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총 예산액 149억 유로 중 119억 유로가 17개의 첨단기술 개발 및 확산 지원에 사용
  -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HTS) 수립
- **(베를린 투자 생태계)** 2021년에는 105억 유로(116억 달러)가 독일 베를린에 유입됨. 이는 독일에 투자한 총자본의 60%를 차지.
- **(창업 관련 법적 제도 완화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08년 11월부터 Unternehmergeellschaft(혹은 Mini-GmbH)라는 기업 유형을 도입, 설립자본 1유로로 유한회사 설립 가능한 제도 마련
  - 창업기업이 독일 내에서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자이나, 과세 대상 거래가 창립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독일 ‘소규모기업규정’에 따라 부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정책 환경

- **(정책자금)** 2021년 6월 독일 정부는 1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성장단계(Growth stage)에 있는 스타트업 중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기업에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
-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환경보호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
- **(첨단기술전략)** 독일의 중장기 신기술 지원 정책이자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교육연구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포괄적인 혁신지원 대책
  - 기후변화·에너지, 보건·영양, 모빌리티, 안전, 커뮤니케이션의 5개 영역에서 총 11개의 과학기술개발 우선추진 과제를 설정
  - 정보통신기술·광학기술·생산기술·재료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마이크로 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핵심
- **(엑지스트 창업 정책)** 1998년 EXIST-Programme에 법적 근거를 둔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지식 획득·이전 및 혁신활동·지식교류 원활화가 목적

13) 김영우, 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2018)

- EXIST-Seed: 과학기업 창업자에게 직접 자금을 제공
- EXIST-Transfer: 추가적인 지역 네트워크 지원
- 3개 구간 지원 프로그램: Line 1, Line 2, Line 3
  - ◆ **(Line 1-창업지원센터 건립)** 대학 및 연구소 내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프로그램. 선정된 대학에는 3년간 사업비 지원
  - ◆ **(Line 2-신생기업 자금지원)** Line 1에서 육성된 창업지원센터 내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자 및 대학생의 창업 아이디어 실제화를 지원
  - ◆ **(Line 3-고도기술기반 창업)** Line 2에서 발굴한 우수 연구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한 추가지원 프로그램. 연구원의 급여, 설비, 원자재 구입비 및 디자인개발비용을 지원
- **(종합혁신프로그램)** 초기 창업 자금지원뿐 아니라 창업 혁신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원

####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로켓인터넷)** 유럽 유니콘의 25%를 배출한 독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로켓인터넷은 기존 성공한 혁신기업을 사업모델로 모방하여 시행착오 비용과 실패 가능성을 줄여서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복제 전략 구사
  - 잘란도: 온라인 신발 유통기업으로 시작, 현재 유럽 최대 온라인 패션유통기업
  - 헬로 프레시: 2011년 베를린에서 설립,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밀키트기업이자 북미·유럽 7개국에 진출하여 식료품 배달 분야 1위로 성장
- **(실리콘 엘리)** 2011년 2월 베를린 스타트업 밋업(Meetup)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현재까지 매월 1회의 밋업을 이어가고 있음. 베를린에서 영어로 진행된 최초의 밋업 이벤트. 실리콘 엘리 캠퍼스 주변에는 10여 개의 VC와 35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 코워킹 스페이스 보유
  - **(입주기업)** : Here, Strip, BIGCHAIN, ocean, Klara, Point Nine(엔젤 VC)
- **(엑셀 스프링거 플러그 앤 플레이)** 디지털 기업가를 위한 액셀러레이터로 Axel Springer SE와 Plug and Play Tech Center의 합작 투자로 설립.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크, 워크샵, 공유 오피스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

4) 프랑스<sup>14)</sup>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제도적 지원) 프랑스는 2018년 5월 프랑스를 스타트업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French Tech Visa 정책을 도입, 프랑스가 기존에 강점을 지닌 산업의 성장과 新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Industrie du Futur) 프로젝트 시행

French Tech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비즈니스 비자는 대략 15일 이내에 후보자 출신국의 프랑스 영사관에서 배부, 체류증(4년) 취득할 수 있으며 갱신 가능 (모든 절차 간소화)</li> <li>• 배우자도 특별한 절차 없이 취득 가능하며 프랑스 내 취업 가능</li> <li>• 전 세계 인재를 프랑스 정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li> </ul>

- (유럽 내 높은 스타트업 관련 기술인력 증가율 및 세계 수준의 인력보유) 프랑스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전년 대비 3.6%와 2.5%의 높은 스타트업 관련 기술인력 증가율로 유럽 내 상위권을 차지.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 수는 2017년 1위 독일, 2위 영국에 이어 유럽 내 3위(467,454명)를 기록

□ 정책환경

- (‘프랑스 2030’) 2030년까지 1,000억 유로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10개의 기술기업 프랑스 내 유치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투자 예산 편성
  - 혁신기술 기업 대상 50억 유로 포함 총 150억 유로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
  - 디지털 직업 훈련 예산 포함(10억 유로)
- (프렌치 테크 티켓) 해외 스타트업들의 프랑스 정착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정책. △신속한 프랑스 체류 비자 행정처리 △보조금 지원 △41개 인큐베이터 시설 접근성 제공
  - (지원대상)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를 가진 기업
- (파리지역 스타터 팩) 외국 기업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고 그들 프로젝트에 맞는 정책적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지원 △첫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컨설팅 지원 △1,000개 이상 기관 네트워크 가입 제공
  - (지원대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진출하려는 외국 스타트업으로 고용 규모는 최소 5명 이상 250명 미만, 총결산액이 4,3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2018)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100000&bid=0001&tag=&b\\_list=10&act=view&list\\_no=2364&nPage=20&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100000&bid=0001&tag=&b_list=10&act=view&list_no=2364&nPage=20&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

- (파리 랜딩 팩 익스플로어) 외국 기업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고 그들 프로젝트에 맞는 정책의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파리 진출 해외 스타트업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운영 △회의공간, 인큐베이터 이벤트 제공, 사무 공간 대여 등 다양한 수단 지원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창업 클러스터) ①파리-사클레이 클러스터(Cluster Paris-Saclay) ②캡디지털(Capdigital) ③스테이션 F(Station F) ④ 에콜 42(Ecole 42) 등의 창업클러스터가 구축
- (주요 액셀러레이터) ① 파리엔코(Paris&Co) ② 창조밸리(Creative Valley), ③ CA 빌리지(Le Village by Credit Agricole)
- (1쿠바토르) 1쿠바토르(1Kubator)는 프랑스 최고의 혁신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로 2015년 출범한 이후 9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성장시킨 이력 보유
- (파트너 50) 프랑스 기반 벤처 캐피털사이자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멘토링, 자금 조달, 해외시장 연결, 전문가 네트워킹 및 사무실 공간 제공
- (스쿨랩) 대학생 대상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 (유라테크) 2009년에 설립된 유럽 3대 액셀러레이터. 매년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와 500개 이상의 네트워킹 이벤트 주최

5) 아일랜드<sup>15)</sup>

□ 벤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 (개요) 아일랜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15위, 유럽 9위, EU에서 7위 등 비교적 안정적이며 더블린(Dublin)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우 타이페이, 헬싱키, 마드리드를 제치고 46위에 안착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주력) 아일랜드의 창업 생태계의 주류는 에너지와 환경 산업이고 이는 전세계 11위에 해당

□ 정책환경

- (자금지원) 혁신아이디어 스타트업에 장학금, 멘토링 등의 지원을 위해 최대 1.5만 유로 지급
- (세제 혜택) 12.5%의 낮은 법인세 적용

15)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665개의 스타트업 중 66%에 해당하는 441개가 집중. 에너지와 환경, 보건, 소프트웨어, 데이터 스타트업이 주요 산업
- 더블린에는 118개의 에너지 환경 스타트업과 63개의 보건 스타트업, 59개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스타트업이 활동 중

[표 5] 아일랜드 주요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구분	분야	개요
The Yield Lab Europe	Agriculture, AgTech, Aquaculture, Farming, Venture Capital	Yield Lab Europe is the leading early-stage investor in Agri Food and Ag Tech startups that are revolutionizing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Dogpatch Labs	Coworking	Dogpatch Labs is a selected startup hub in the Digital Docklands of Dublin
The Pearse Lyons Accelerator	AgTech	The Pearse Lyons Accelerator is a three-month program for ten agritech and agricultural science entrepreneurs
NadiFin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FinTech, Machine Learning	NadiFin is a FinTech accelerator program for early-stage companies
LaunchBox	Advice, Business Development, Tutoring	LaunchBox is a three-month accelerator program for Trinity student teams (undergrad and postgrad)

자료 출처: StartupBlink, <https://www.startupblink.com/startup-ecosystem/dublin-ie>

6) 스웨덴 16)

- (글로벌 시장 진출 활발) 우리나라보다 투자 규모는 작지만 성장 후 단계에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 특히 M&A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들이 인수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2019년 11월 한달 스웨덴 스타트업의 엑시트 총 26건 중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 주도의 M&A를 통한 엑시트는 총 9건으로 집계됨
  - 천만 명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미국 다음으로 인구 1인당 최대 유니콘 스타트업을 보유

16)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비즈니스 트렌드(2020)

[그림 9] 스웨덴 스타트업 엑시트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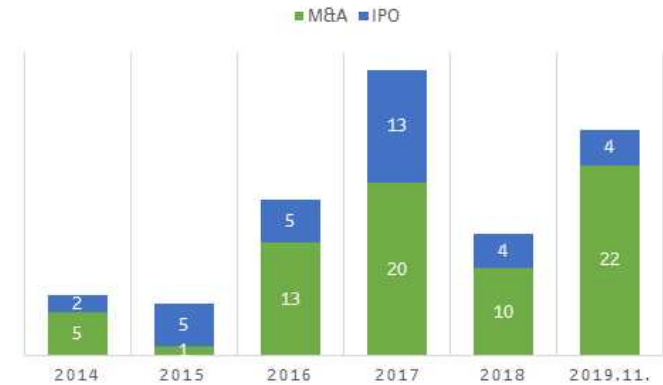


그림 출처: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비즈니스 트렌드(2020)

- (3S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특화) 스웨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확장 친화적(scalable)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청정기술, 소셜벤처,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이 주를 이룸

[표 6] 스웨덴 스타트업 주요 비즈니스 모델

구분	기업명	비즈니스 모델	
클린테크 (Cleantech)	모빌리티	Elonorode: 전기차 자동충전용 도로 Apparkingspot: 잉여 주차공간 중개 연결	
	식료품	Karma: 잉여 식료품 중개 판매 Whywaste: 식료품 유통기한 추적.관리	
		에너지	Enjay: 건물 냉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Woshapp: 친환경 세차
	소셜벤처 (Social Venture)	헬스케어	Natural Cycles: 여성용 디지털피임기구 Nectarine Health: AI 기반 원격 노인 돌봄 서비스
		농업	Gronska: 실내 도시 농업 Ignitia: 열대지역 일기예보 서비스
			교육
기업용 소프트웨어 (Enterprise Software)		경영관리	Qvalia: 간편 인보이스 플랫폼 Worldfavor: 기업 CSR 관리 플랫폼
	제품개발	Volumental: 3D 신발제작 플랫폼 Peltarion: AI 운영체제 개발 플랫폼	
		제품관리	Mavenoid: A/S 및 기술지원 플랫폼 Buildsafe: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비즈니스 트렌드(2020)



7) 중국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BAT 사례로 인한 창업 붐)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시작으로, △드론 △의료 △공유자전거 등의 스타트업 성공사례가 나타나며 따라 신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창업이 확산하고 있음
  - (기회형 창업의 확대<sup>17)</sup>) 중국의 생계형 창업은 '12년 37%에서 '18년 27.8%로 감소, 기회형 창업은 '14년 65.7%에서 '18년 70.5%로 증가
  - (창업 형태<sup>18</sup>) 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창업 분야 중점의 창업 형태로 △차량 공유 서비스 △금융 △기업 서비스 △의료·건강 △전자 상거래 순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10] 중국 유니콘 기업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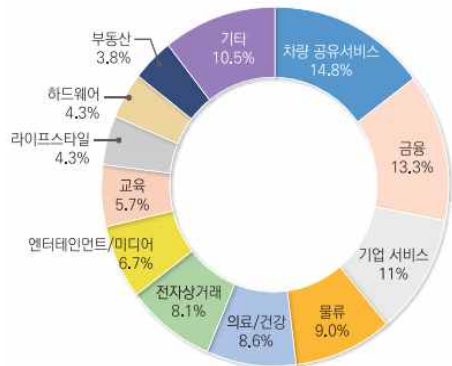


그림 출처: IT위즈(IT桔子), 중국 국가통계국

- (창업 생태계 글로벌 위상 제고)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13년 35위에서 '19년 14위로 급상승,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베이징이 3위, 상하이 8위 기록
  - (유니콘 기업<sup>19</sup>) 후룬 리포트(Hurun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총 494개 중 중국 기업은 206개로, 203개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 ('19년 10월 기준)
  - (중국 유니콘 기업의 업종 및 대표기업) △핀테크 △AI △헬스케어 등의 온라인 플랫폼 및 첨단제조업의 형태 위주, 대표기업으로는 '앤티파이낸셜', '디디추싱', '샤오미', '진터우타오' 등이 있음

17) KIEP(2019),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p.37-40  
 18)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중국'  
 19)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 정책환경

- (창업 생태계 마스터플랜 수립) 중국은 '15년 3월부터 다수의 개인에 의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창업 확산을 통한 경제 혁신을 도모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이하 '쌍창')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함
  - (핵심 정책 방향) △경쟁환경 개선 △과학기술 사업화 △모든 규모의 기업 협력 강화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 (쌍창의 발전<sup>20</sup>) 중국은 △혁신 추구 △제도 개혁 △인재 육성 △시장 주도 △정보 공유라는 5대 기본 방침 아래 △창업기업 설립 규제 완화 △금융지원 확대 △과학기술 사업화 △기업 간 협력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매년 쌍창을 갱신

[표 7] '대중창업, 만중혁신' 발전 정책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창업환경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li> <li>• 사회 신용 시스템 수립</li> <li>• 전국 통합 창업 서비스플랫폼 구축</li> </ul>
창업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원 강화</li> <li>• 혁신 창업 상품의 정부 조달 정책 마련</li> <li>• 혁신 창업을 통한 중대 기술 장비 시범 운용</li> <li>•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구축</li> </ul>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인재 유입 촉진</li> <li>• 대학생 혁신 창업 교육 강화</li> <li>• 귀향 농민공 창업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li> <li>• 퇴역 군인 창업 교육 및 지원</li> <li>• 귀국 인재, 외국 인재, 화교, 대만 및 홍콩인의 창업지원</li> <li>• 소수민족 혁신 창업 가속화를 특별 사업 추진</li> </ul>
과학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기업의 선도적 역할 확대</li> <li>• 과학기술 성과 시장화 시스템 구축</li> </ul>
혁신 창업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큐베이터 서비스 향상</li> <li>• 대·중·소 기업 융합 발전 플랫폼 마련</li> <li>• 공업 인터넷 혁신 3개년 행동 계획(工业互联网三年行动计划) 실시</li> <li>• 국가 혁신 창업 정책정보 서비스망 건설</li> <li>• 핵심 창업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실시</li> </ul>
금융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li> <li>• 맞춤형 투자 지원</li> <li>• 직접 용자 채널 확대</li> </ul>
글로벌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 상하이, 웨이강아오를 글로벌 창업 혁신기지로 선정</li> <li>• 국가급 신규의 창업기지 건설</li> <li>• 창업 시범기지의 국제협력 추진</li> </ul>
정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창업 정책 수립</li> <li>• 세분화 정책으로 창업 육성</li> <li>• 혁신 창업 사례 공유 및 창업문화 확산</li> </ul>

- (방향성) 창업의 고용 창출, 新업종 출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20) KIEP(2019),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p.46-60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창업 생태계 구축지원)<sup>21)</sup> 중국은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된 대학·연구소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대학 내 창업지원 지휘부의 신설을 통해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사업화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표 8]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기관 및 인큐베이터

회사명	지원대상	역할 및 주요 지원내용
Shanghai Technology Entrepreneurship Foundation for Graduates	본과 4학년 이상의 재학생, 8년 이내의 졸업생, 신청인이 중국 국적이며 기업 주소지가 상하이에 있는 등 조건에 따라 지원 내역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이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창업문화 전파, 창업을 지원하는 공익 기관</li> <li>'06~'18년 2,123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li> <li>투자인, 전문가 등과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계획에 대해 논의 및 협력하는 훈련을 매년 6회 진행</li> </ul>
상하이과학기술 창업센터	스타트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도 기준 100여 개의 기업을 양성</li> <li>스타트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창업 교육 관련 자문 제공</li> <li>과학기술 관련 스타트업 대상 대출</li> </ul>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보조금 및 대출 보조금 지원 등</li> <li>인큐베이터 건설 지원 등</li> <li>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1~6개월간 실습 지원</li> </ul>

[표 9] 중국 주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회사명	전문분야	지원내용
TOJ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 플랫폼</li> <li>AI</li> <li>커피</li> <li>프랜차이즈</li> </ul>	공급사슬, 교육, 서비스, 홍보, 투자 지원, 투자-자산 관리 등
선전시 모티앤즈싱 과학기술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제조</li> <li>기업 서비스</li> <li>인터넷</li> <li>과학기술</li> </ul>	경영 서비스, 교육, 정책 투자유치 등
티앤스황커	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록 서비스, 기업 법률 서비스, 인터넷 영어 서비스 등의 기업 서비스 제공
츠디즈싱	신기술	엑셀러레이팅, 창업 교육, 엔젤투자, 사무 공간 제공
Legend st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li> <li>TMT</li> <li>헬스케어</li> </ul>	투자유치 지원 및 각종 활동 지원
Tencent 공유창업공간	모바일 인터넷	Tencent 매체 활용 홍보 사무 공간 제공 등
Innoangel 공유창업공간	AI	투자유치 매칭, 스타트업 홍보 등

21)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중국'

8) 일본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투자유치 확대)<sup>22)</sup> '21년 일본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모는 1조 1,888억 엔이며 투자유치 기업 수는 1,582개를 기록함

[그림 11] 일본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모 및 자금 유치 기업 수 (2021년)



- '20년 대비 '21년 투자유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기업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소수 기업에 자금이 집중 (평균 약 5.6억 엔)
- '21년 100억 엔 이상의 투자 규모를 유치한 기업의 분야는 △IT서비스 △SaaS(Software as a Service) △공유경제 △친환경 소재 △우주·항공 등

[표 10] '21년 일본 스타트업 투자유치액 상위 5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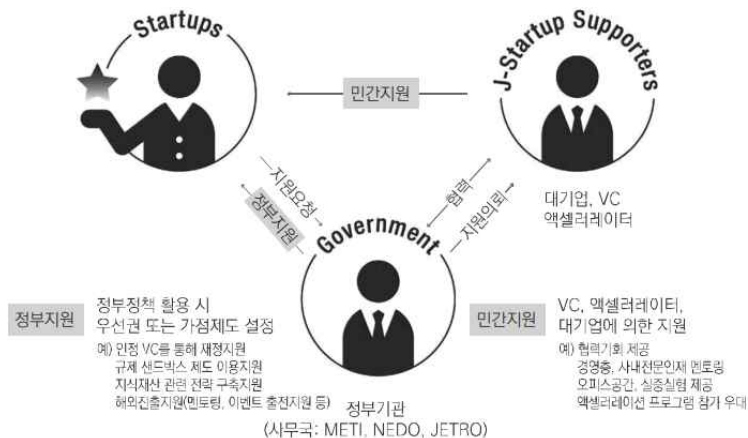
순위	기업명	제품·서비스	투자유치액 (억 엔)
1	SmartNews	실시간 뉴스 콘텐츠 발신 어플리케이션	252.1
2	Mobility Technologies	택시 배차 어플리케이션, 광고-결제 태블릿 등	175.6
3	Smart HR	클라우드 인사 노무 소프트웨어	156.5
4	Spiber	인공 단백질 소재	143.9
5	Astroscale	우주 쓰레기 제거 서비스	124.8

22) 김소정, '2021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일본 스타트업 5곳', Kotra해외시장뉴스(2022.03.2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

□ 정책환경

- **(일본 재흥 전략)**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세부 정책인 ‘일본 재흥 전략’을 ‘16년 수립하고 일본경제 재건을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
  -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후쿠오카시는 ‘14년 글로벌 창업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스타트업 법인 세금 감축 및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등의 정책 시행
  - **(기업 응원 세제)** 창업 비용으로 최대 200만 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 부여
- **(J-Startup)<sup>23)</sup>** 일본 스타트업의 질적 향상과 우수사례 형성을 위해 ‘18년 6월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협력 시행
  - **(목표)** 스타트업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사회 전반 기업가정신 양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 **(개요)** 일본 내 약 10,000社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J-Startup 기업으로 브랜드화 및 집중지원
  - **(선정방식)** 전문 벤처 투자가, 엑셀러레이터, 대기업 혁신부서 담당자가 목표, 독창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하며 이후 외부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J-Startup 기업을 최종 선정
  - **(지원)**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활용 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지원, 지식재산 관련 전략 구축지원, 멘토링 또는 이벤트 출전지원과 같은 해외진출 지원 등의 우선권 또는 가점을 부여받음

[그림 12] J-Startup 지원 제도



23) KIEP(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민간(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 일본은 주기적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함
  - **(대표 엑셀러레이터)<sup>24)</sup>** MOVIDA JAPAN, OnLab(Open Network Lab), Samurai Incubate, Startup Club Japan, KDDI Mugen Labo, Docomo Innovation Village 등

[표 11] 일본 스타트업을 위한 주요 엑셀러레이터

명칭	프로그램	특징
MOVIDA JAPAN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VIDA Seed Acceleration, Program Skill Study, Networking Mentoring, Share Office, Support</li> <li>• Entre(3개월)→ Prototype Day(3개월)→Demo Day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시부야) 기반 대표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li> <li>- 일본 자국 및 아시아지역에 스타트업 eco system 을 구축하는 것이 MODIVA의 목표</li> <li>-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1,000개 스타트업 육성 및 1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li> <li>- 엑셀러레이팅 분야: 모바일 및 ICT,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li> </ul>
OnLab (Open Network Lab,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ed Acceleration, 커뮤니티 이벤트 (네트워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시부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li> <li>- 1년에 2차례, 3개월 기간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Seed Acceleration) 진행</li> <li>- Data, 디자인, 개발, 사업화를 강조</li> <li>- 창업 2년 미만 극초기 스타트업 육성</li> </ul>
Samurai Incub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매년 200회 이상 스타트업 대상 교육</li> <li>• 사무라이 인큐베이트: 멘토링 중심</li> <li>•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10개국 이상 커뮤니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 초기투자자와 함께 엑셀러레이팅을 진행</li> </ul>
Startup Club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SLAP(Speak Learn and Pitch) 행사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rtup Club 글로벌네트워크 일본지사</li> <li>- 보육공간 제공, 멘토링 중심의 엑셀러레이터라기 보다는 네트워킹이 강함</li> <li>- Startup Club Japan은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Feedback, Partnership&amp; Connection, Funding 등의 네트워킹 중심의 지원을 제공</li> </ul>
KDDI Mugen Labo(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DI Mugen Labo</li> <li>• 3개월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T에 이어 일본 제2위 통신회사인 KDDI가 운영</li> <li>- 광범위한 로컬/글로벌 네트워크 활용</li> <li>- 제공서비스(3개월): 사무 공간 지원, 법무/세무 지원, 실무지원, 네트워킹, 데모데이</li> </ul>
Docomo Innovation Village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제1위 통신사 NTT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li> <li>- NTT가 500 Startups, B Dash Ventures 등 세계적 엑셀러레이터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NTT의 로컬 네트워크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가</li> </ul>

24) 오지선(2016), ‘일본의 창업 동향과 창업생태계’

9) 인도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인도 스타트업 정의) 창업가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통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생기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의미와 다르게, 인도는 국가 내 창업 5년 이내, 매출액 25억 루피(한화 약 42억 원) 이하인 기술기반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인도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션 등으로 지식 인프라 및 우수한 인력 풀을 구축해옴
- '18년 기준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비중의 5.4%를 차지하는 인도는 미국(58.5%)과 중국(16.2%)을 잇는 세계 3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며 유니콘 기업의 수는 세계 4위를 기록함
  - (주요 분야)<sup>25)</sup> 기술 패권 경쟁력 확보가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기반 기술 관련 업종이 주

[표 12] 인도 10대 유니콘 기업 현황

번호	기업명	분야	설립일	기업가치 (십억 달러)
1	Flipkart	전자상거래	2007.10	21
2	Snapdeal	전자상거래	2010.08	10
3	Paytm	핀테크	2010.12	5.5
4	Ola Cabs	운송서비스	2008.12	2
5	Renew Power Ventures	에너지	2011.06	2
6	Hike	소셜미디어	2012.12	1.4
7	Shopclues	전자상거래	2014.08	1.2
8	InMobi	소셜미디어	2011.06	1.1
9	Quikr	전자상거래	2007.06	1
10	Zomato	배달서비스	2008.06	1

- (3대 도시)<sup>26)</sup> 인도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거점도시인 벵갈루루, 델리, 뭌바이에 집중. '10~'19년 사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수는 각각 4,373개, 3,495개, 2,707개
  - (벵갈루루)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IT·공학 중심 미래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델리) 정부기관 및 주요 인프라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 (뭌바이)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우수한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 및 인큐베이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5) KITA(2018), 2018년 인도 스타트업 현황  
 26) KIEP(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정책환경

- (Start-up India)<sup>27)</sup> 인도 정부는 '16년부터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지원 전담 조직(Startup India Hub)을 신설해 스타트업 맞춤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함
  - (배경) 창업 규모는 세계 3위를 기록하지만 열악한 기업 환경으로 인해 생존율은 10%를 하회, 인도의 복잡한 규제 및 세제, 불안정한 R&D 환경 등을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목적)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분야)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농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표 13] Start-up India 주요내용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고 고용 창출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 스타트업 기금 조성 (4년간 매년 250억 루피, 약 3억7,500만 달러씩 투자)</li> <li>• 창업 기간 단축</li> <li>• 3년간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경법 준수 관련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li> <li>• 특허출원 비용 80% 감면 및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지원</li> <li>• 3년간 법인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 면세</li> <li>• 벤처 투자자금 세금 면제</li> <li>• 스타트업 인디아 허브 조성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li> <li>• 제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정부 입찰 시 규제 완화</li> <li>• 혁신 경진대회 및 기업가 양성 교육과 인큐베이션 제공</li> <li>• 31 혁신 R&amp;D 센터 설립(13개 스타트업센터, 18개 기술경영 인큐베이션)</li> </ul>

- (중소기업 육성방안) 인도는 12차 국가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인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화시키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함
  - (금융) 중소기업의 금융 정보 접근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플랫폼 추진, 중소기업 클러스터 인근 은행지점 설립 확대, 자금 출처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기회 확대(사모펀드, 벤처투자, 엔젤펀드 등)
  - (기술 업그레이드) 인력 교육훈련 시설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 개발) 클러스터 기반의 산업인프라 개발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 (마케팅 및 조달) 시장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공공 조달정책 도입
  -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프로그램 시행
  - (제도적 구조) 각 중소기업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전자 기업등록 시스템 추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7) KITA(2018), IIT TRADE FOCUS 54호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인도의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sup>28)</sup>는 △IT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 등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타겟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자금 조달 지원을 하는 체계가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어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임
  - (하이드라바드) Catalyzer, Health Start
  - (벵갈루루) Microsoft Accelerator, Kyron Accelerator, Target Accelerator
  - (구르가온) GSF Accelerator, 5 ideas, Global Accelerator Network(GAN)
  - (뫼바이) Freemont Partners
  - (노이다) TLabs Accelerator
  - (첸나이) The Startup Centre

[표 14] 인도 스타트업을 위한 주요 액셀러레이터

회사명	지원대상 분야	지원내용
Catalyzer	• 하이드라바드주 소재 IT, 헬스케어, 환경 교육 등 스타트업	- 스타트업 101 액셀러레이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연 2회 최대 12개社 선정) - 펀딩 지원: 최대 약 14천 달러
Freemont Partners	• 인터넷 및 클라우드	- 펀딩 지원: 초기투자본으로 최대 약 6만 9천 달러
GSF Accelerator	• 인터넷 및 모바일	- GSF Global 액셀러레이터(13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펀딩 지원: 약 2만 5천 ~ 3만 달러
Health Start	• 헬스케어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20주) 운영 - 펀딩 지원: 약 10만 달러
I Accelerator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교육 등	- 펀딩 지원: 약 6천 9백 달러
Microsoft Accelerator	• 마이크로소프트 기술기반 클라우드, 인터넷, 모바일	- 4개월 교육 프로그램(매년 1월~7월) - 펀딩 지원: 없음
Kyron Accelerator	• IT	- 펀딩 지원: 최대 2만 달러
Target Accelerator	• 마케팅, 유니채널, 모바일, 빅데이터 등	- 타겟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16주) - 펀딩 지원: 약 3만 달러
TLabs Accelerator	• 인터넷 및 모바일	- 펀딩 지원: 약 1만 4천 달러
The Startup Centre	• IT	- 펀딩 지원: 약 1만 4천 달러
5 ideas	• 인터넷, 모바일	- 펀딩 지원: 최대 약 3만 5천 달러
Global Accelerator network(GAN)	• 핀테크, 인공지능, E-Commerce, 소프트웨어 등	-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 펀딩 지원: 6개社 선정 후 1만 5천 달러 등

28) KITA(2018), 2018년 인도 스타트업 현황

10) 베트남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스타트업 시장 확대) '18년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의 펀딩 라운드를 진행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20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건수는 105건, 투자유치액은 4억5천1백만 달러를 기록함
  - △핀테크 △전자상거래 △물류 △보험 △교육 및 의료분야에서 200개 이상 펀드가 존재하여 지속적인 벤처투자가 이루어짐
- (글로벌 위치) 베트남은 세계 스타트업 유망국 20위 권에 속하며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수 기준 3위. '19년 상반기 신규 설립 기업은 79,300개며 이 중 3,000여 개가 기술 스타트업임
- (디지털 서비스 기반 창업의 확대)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부분 분야에서 비대면 형태가 확산하여 전자상거래, 에듀테크, 핀테크 부문 등에 대한 신규 소비자 유입이 증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이 가속화됨
  - (핀테크)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는 '17년 67개에서 '19년 6월 기준 120개로 증대되었으며 △모바일 결제(payment) △P2P 금융 △블록체인 순의 창업 분야를 형성함
  - (모바일 인터넷) '17년 베트남 스타트업 수는 약 2,000개가 되며 특히 O2O(Online To Offline) 소비 추세가 확산함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
- (4대 유니콘 기업)<sup>29)</sup>'22년 기준 베트남 내 가장 활성화된 핀테크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스타트업 중에서 막대한 성장이 진행 중인 유니콘 기업은 다음과 같음

[표 15] 베트남 주요 유니콘 기업

기업	분야	요약
VNG	인터넷 (게임, 메신저) 부문	온라인게임에서 게임, 메신저, 결제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인터넷 부문 최상위 매출액을 기록
VNPAY	IT, 금융, 핀테크	베트남 국내 주요 은행 및 소매점에 전자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MoMo	금융, 핀테크, 모바일 결제	수익보다는 공격적인 시장확장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금융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권으로의 진출을 준비 중
Tiki	전자상거래, 소매, 쇼핑	베트남 내 물류 인프라 운영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100% 자동화와 창고 체인 50% 자동화 투자에 주력

29) KIEP(2022),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발전 전망' 참고



□ 정책 환경

- 베트남 정부는 '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위해 '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Initiative for the Startup Ecosystem in Vietnam until 2025, ISEV-National Program 844)<sup>30)</sup>를 수립
  - (National Project 844 목표) △스타트업 창출·성장애의 유리한 환경 조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개선 △ 국가 스타트업 포털 생성 등

[표 16] National Project 844 주요내용

구분	내용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역량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능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li> <li>◆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역, 국가, 국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이해관계 간의 네트워킹 장려</li> <li>◆ (정책 및 법적 기틀 마련) 벤처기업 등록, 활동 및 베트남 투자에 유리한 법률 기틀 생성 및 유지</li> </ul>
펀딩 중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연구소</li> <li>◆ 스타트업, 멘토, 코치, 투자자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업체</li> <li>◆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업체</li> <li>◆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행사</li> <li>◆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li> </ul>

- (ISEV 목표) '25년까지 △2,000개 스타트업 프로젝트 및 300개 스타트업 지원 △100개 기업의 VC투자 유치 또는 M&A 성사 등

[표 17] ISEV 주요 지원 활동

구분	내용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특허, 국가표준, 인력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li> <li>◆ 혁신 스타트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센터 설립</li> <li>◆ 과학기술 관련 연간 국가 예산에 TECHFEST(국제 규모의 국가 기술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경비 편성 및 지원</li> <li>◆ '20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 상업화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li> <li>◆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인력양성 및 서비스 활동 개발</li> <li>◆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기술 개발</li> <li>◆ 스타트업 활동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비 지원</li> <li>◆ 역내 및 세계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li> <li>◆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파트너, 투자자 소개 및 투자자와 국내 스타트업 수속 지원</li> <li>◆ 혁신 스타트업의 연구, 시험, 시장 테스트, 저이자/무이자 융자 등에 중앙 행정 부처 및 직할 성·시의 과학기술 발전기금 사용 장려</li> <li>◆ 혁신 스타트업 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법규의 개정, 신설 등</li> </ul>

30)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베트남'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부처 지원)<sup>31)</sup>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스타트업 조직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담당부처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
  - 연간 행사 개최,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시

[표 18] 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주요 정부 부처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내용	담당 정부 부처
ISEV (Initiative for the Startup Ecosystem in Vietnam until 2025, 기존 National Program 8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li> <li>-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li> <li>- 생태계 개발과정 참여 및 정책 제언</li> </ul>	과학기술부(MoST)
NSSC (National Startup Support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스타트업에 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컨설팅 제공</li> <li>- 디지털 플랫폼,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국내외 자원을 이용하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촉진</li> <li>- 기술이전 지원과 혁신 스타트업 조직 역량 강화</li> <li>- 스타트업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 개최</li> </ul>	과학기술부(MoST)
NIC (Vietnam National Innovatio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개발, 상업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지원</li> <li>- 사무실 등 공동작업 공간 제공</li> <li>- 다양한 펀딩 채널 연결 지원</li> <li>-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li> </ul>	기획투자부(MPI)
Khoi Nghiep Quoc Gia (국가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li> <li>- 스타트업 창업 지식 및 경험 공유</li> <li>-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멘토링 및 종잣돈 투자 지원</li> </ul>	상공회의소(VCCI)
BSSC (Business Startup Support Cent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에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사무실 공간 제공</li> <li>- 스타트업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에 저금리 대출 지원</li> <li>- SK와 Vingroup과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제공</li> </ul>	호치민 인민위원회
Bambu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혁신기업, 투자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li> <li>- 스타트업 경영활동 지원</li> </ul>	하노이 인민위원회

31) KIEP(2022),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발전 전망'

## 11) 인도네시아

###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디지털경제 기반 창업환경)** ‘20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산업 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반의 소비문화, 콘텐츠 이용,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이 확대됨
  - 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구매력 지수<sup>32)</sup> 경제 규모 세계 7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간(‘15~‘20년) 디지털 분야 경제성장률 41%로 동남아시아 내 1위를 기록함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 수는 총 2,197개이며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
- **(데카콘·유니콘 기업)<sup>33)</sup>**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운송 수단, 전자상거래, 핀테크 분야에서 데카콘\* 및 유니콘 기업이 출현
  - \* 데카콘 기업: 평가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 ‘22년에도 비대면 서비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분야 등의 잠재적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함

[표 19] 2021년 12월 기준 인도네시아 유니콘 현황

	기업명	유니콘 현황	산업 부문
1	Gojek	2016 (유니콘) 2019 (데카콘)	• 슈퍼 앱(교통, 물류, 배송, 모바일 결제)
2	OVO	2019 (유니콘)	• (핀테크) 전자 결제
3	Ajaib	2021 (유니콘)	• (핀테크) 밀레니얼 세대 초보자 중심 투자 플랫폼
4	J&T Express	2021 (유니콘)	• (물류·배송) 중국, 동남아시아 택배 운송
5	Kopi Kenangan	2021 (유니콘)	• (소매) 커피 프랜차이즈
6	Traveloka	2017 (유니콘)	• (여행·관광) 온라인 여행사

- **(주요 분야별 동향)**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는 △물류 △전자상거래 △에듀테크(Edu-Tech) 등이 있음
  - **(물류)** 전자상거래의 이용 증가로 인해 물류 부분의 후진성은 기존 물류 산업 운영에 타격을 주어 회사들의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및 창고와 수송을 최적화·자동화 전환을 추진 중
  - **(전자상거래)** 인터넷 산업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전자상거래 부가 산업 부문 또한 여러 투자유치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에듀테크)** 원격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 또한 높은 수요로 다양한 투자를 끌어내고 있음

32) 전규열, “핀테크·이커머스 창업 강국 된 인도네시아”, 주간경향 1472호(2022.04.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 (접속일:2022.08.25.)  
 33) CB insights (2021.12.)

### □ 정책환경

- **(스타트업 성장 한계)**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 설립 이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은 ‘19년 기준 5%, ‘20년 기준 10%를 하회. 정부는 시장 성장에 만 중점을 두어 스타트업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태
  - 디지털 시장의 확산으로, 시장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시행이 주를 이루며 전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정책)<sup>34)</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경제를 향후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
  - **(전자상거래 로드맵)** 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5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전자 상거래 운용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 발달을 촉진할 프로그램 및 이해관계자 활동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2년마다 갱신하여 꾸준히 발전시켜옴
  - **(Making Indonesia 4.0)** ‘18년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디지털 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 디지털경제 개발 및 ICT·IoT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
    - **(목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자동화 및 전자상거래 체계 구축 등
    - **(분야)**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식음료 등
  - **(ICT 2025 계획)** ‘15년 발표한 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RIPIN)을 통해 전자·정보통신을 6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중 ICT 인프라 구축, ICT 인력자원 개발,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25년 지식 기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함
    - **(주요 안건)** △인프라 및 보안 △도입 및 창의적 활용 △규제 및 입법 △투자 관련
    - **(단계적 목표)** 정보사회 진입(‘15년) → ICT기반의 국가 건설(‘20년) → 지식 기반 사회 실현(‘25년)
  - **(국가 AI 전략)<sup>35)</sup>** ‘20년 인도네시아 국립 연구·혁신청 산하 연구기관 기술평가·도입청은 디지털경제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45년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함
    - **(방향성)** △AI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투자 부문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 증대 △각종 부문에서의 혁신성 제고 도모
    - **(분야)** 중점분야는 △윤리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재능 개발 △인프라 및 데이터 △혁신 등이며, 우선 분야는 △보건의료 서비스 △관료제 개혁 △교육 및 연구 △식량안보 △지능형 도시 및 지능형 이동 수단 등이 있음

34) KIEP(2022),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과 정부의 기대 역할’  
 35) KIEP(2022), ‘인도네시아 국가 AI 전략의 중점 목표와 과제’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주도 혁신센터 운영)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는 '16년부터 1,000개의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 10개 도시<sup>36)</sup>에 공유 오피스, 멘토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비정기 프로그램 및 코스를 연중 운영하고 세미나, 워크숍, 부트캠프<sup>37)</sup> 등을 개최함
- 또한, 스타트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sup>38)</sup>를 운영하고 있음
  - '20년 기준 9개의 독립기관 및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 스타트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20] 인도네시아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리스트

기관명	지원 주안점	관련 기업
Gojek Xcelerate	교육 / 관련 시너지	Gojek
Antler	기업가치	-
Skala	지속 성장 가능성	Innovation Factory
Surge	기업가치	-
Grab Ventures Velocity	교육/관련 시너지	Grab
IDX Incubator	상장 가능성	IDX
GK-Plug and Play	기업가치 / 관련 시너지	Gan Kapital
Mandiri Digital Incubator	교육 / 관련 시너지	Bank Mandiri
Indigo	기업가치 / 관련 시너지	Telkom Indonesia

- (장애인 비영리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생태계 구축)<sup>39)</sup>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지원 하에 장애인 비영리기관인 PTI(인도네시아 강한 여성, Perempuan Tangguh Indonesia)가 장애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양 기관이 지속적인 자금 조달 및 훈련과 관련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인도네시아 내 기업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중소기업 분야에 장애인들의 진출을 위한 틈새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PTI는 향후 장애인들을 위한 스타트업 형성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PTI 소유의 디지털 플랫폼을 런치, 큰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업 진행 예정

36)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스마랑, 말랑, 메단, 발리, 마카사르, 폰타나나  
 37) 인도네시아 7개 지역에서 100개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창출 목표. 족자카르타에서 첫 시도, Business Incubation & Joint Innovation Unit(BISMA) 및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교(UII)의 협업 프로젝트.  
 38) KOCCA(2020),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 - 해외 콘텐츠기업 탐방'  
 39) ASEIC, 월간 인도네시아 동향 조사 보고 (8월).

12) 싱가포르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핀테크 분야 활성화) 세계 금융 동향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른 디지털·모바일화가 요구되며 이에 금융과 IT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됨

[그림 13] '17년 글로벌 핀테크 허브 지수



- 싱가포르는 팬데믹 이전인 '17년 딜로이트 '글로벌 핀테크 허브 지수<sup>40)</sup>에서 런던과 더불어 최상위권으로 선정됨<sup>41)</sup>
- '21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현재 450여 개 핀테크 스타트업과 30여 개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이 운영되고 있음
  - \* 이노베이션 랩 : 핀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시험하는 연구실
- '21년 기준 '글로벌 100대 혁신 핀테크 기업' 중에서 미국(18개), 영국(12개), 중국(11개), 오스트레일리아(7개) 다음으로 싱가포르(6개)가 5대 핀테크 국가로 부상
- (Tech Start-up의 성장)<sup>42)</sup> 싱가포르의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21년 상반기 53억 달러(SGD) 투자금을 유치(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억 달러(SGD) 증가)하며 3개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함
  - (투자 유치) '21년 상반기에 성사된 스타트업 투자 유치 건수는 355건이며, 지난해보다 38건 증가
  - (유니콘 기업) Carro(중고차 거래 플랫폼), Patsnap(지식재산권 분석 서비스 플랫폼), Nium(핀테크)

40) 핀테크에 우호적인 환경일수록 지수 값이 작게 나타남. 싱가포르와 런던은 각각 11 값을 가짐  
 41) KITA(2018),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42)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스타트업(Startup) 관련 최근 동향'(2021.08.13.)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3408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3408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속일:2022.08.26.)

□ 정책 환경 43)

- (스마트네이션) '14년 싱가포르 정부는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시행
  -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 관련 개발 및 실험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마련
    - ◆ 싱가포르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베드 설치
-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유지 및 관리 부문 등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도입함

[표 21] 싱가포르의 창업 지원 정책과 내용

정책 분야	지원내용
Founder	- 신생기업의 투자금 1달러(SGD) 당 정부에서 3달러(SGD) 지원 - 신생기업 학습 프로그램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Tech	- 기업 독점 기술 상용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POC(Proof-of Concept) 및 POV(Proof of Value) 보조금 지원
Accelerator	- 신생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멘토링 제공을 통해 성장 촉진 지원 ◆ 신생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비즈니스 자금 확보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 멘토링: 멘토 및 전문가 고용 지원 - 운영비 일부 지원
Infrastructure	- 신생기업의 성장, 실험 및 번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 제공 ◆ Block71: Block71은 1970년대에 세워진 낙후된 공단인 에이어 라자 지역을 2011년 스타트업 허브로 변신시켜 전 세계에서 250개 이상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30여 개 등이 상주 중 ◆ JTC LaunchPad @one-north: 지식 기반기업, 교육기관 및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기관을 포함해 다방면의 연구 개발 환경 및 커뮤니티 조성
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AITD)	- Angel Investor로 승인이 되면 투자 후 2년 뒤 투자액의 50%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최대 50만 싱가포르 달러 투자,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 세금공제)
Section 13H (S13H)	- 승인된 벤처 캐피탈 및 사모 주식 펀드로 다음과 관련해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 ◆ 투자한 신생기업들로부터 보유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 투자한 외국 신생기업들로부터의 배당 소득 ◆ 외화 전환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Fund Management Incentive (FMI)	- 승인된 펀드 관리 회사가 다음과 관련해 최대 10년 동안 5%의 조세 감면 ◆ 벤처 캐피탈로부터 수령한 관리수수료 ◆ 벤처 캐피탈로부터 수령한 보너스
Loan	- 기업 운영자금 대출 지원 ◆ 소기업 마이크로 대출: 기업 운영을 위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대출 지원 - 중소 벤처 기업 대출 ◆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고성장 기업은 사업확장을 위해 50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대출 지원

43) 최혜진,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Kotra해외시장뉴스(2018.01.0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 (접속일:2022.08.26.)

□ 민간(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 (정부 주도 창업지원)44) 싱가포르는 자국 내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네거티브 규제 적용, 신기술 적용하기 용이한 환경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년 기준 'Startupsg'에 등록된 스타트업 수는 3,416개이며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는 145개가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스타트업 글로벌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한 정부 기관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ACE', 'SME센터' 등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선정된 기업에게 'NUS Enterprise'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지원함

[표 22] 싱가포르 스타트업 주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명	분야·업종	주요 지원 내용	파트너사	비고
Accete Innovation (SEA Anchor)	◆ 디지털스 ◆ 핀테크 ◆ 스마트 ◆ 로지스틱 ◆ AI ◆ IOT ◆ 웹&모바일	- 3개월간 시설 제공 - 역량에 따라 최대 5만달러(SGD) 투자 예정 - 스타트업 전략 자문 제공	-	-
DBS Hotspot (Pre-Accelerator)	디지털 전 분야	- DBS 경영진, 파트너사 멘토링 지원 - 2만5천 달러(SGD) 지원 - 데모데이* 지원	19개	-
Muru-d	전 분야	-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1개 이상	누적 보육기업 100개 이상
NUS Enterprise (Block 71)	기술창업 전 분야	- 시드 지원 및 시리즈 A 안내 - 동문 네트워크 커뮤니티 - 한국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14개	누적 보육기업 600개 이상
Startup bootcamp Fintech	핀테크	- 400명 이상의 기업가, 파트너사 등 멘토링 지원 - 타겟 시장 접근 방안 지원 - 2만4천5백달러(SGD) 거주 비용 지원	13개 이상	-

44) KOCCA(2020), '2020 싱가포르 특화보고서 - 시장분석보고서'

시사점

- **(동남아시아 산업구조의 지각변동)**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기술의 일상 적용 가속화 및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모바일 중심 시장에 진출·투자하는 양상을 보임
  -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 설립을 장려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 자금난, 불안정적 운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 **(미국의 IT 스타트업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역사가 깊은 서부 실리콘 벨리 포함, 동부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美정부의 안정되고 꾸준한 스타트업 산업 육성 전략, 우수 대학의 혁신 연구·개발, 그리고 거대 IT기업 및 전문 벤처 투자사 간 'R&D → 투자 → 창업 → 성장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EU권의 체계적 스타트업 육성)** 영국의 테크네이션, 독일의 엑지스트 창업 정책은 집중 지원 분야 선별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공통 특징이 있음.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인재 양성으로 소비되어 특화된 기술 및 산업(IT 첨단산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점이 있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민간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가 지속됨이 특징
- **(북유럽 국가의 낮은 스타트업 진입장벽)**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업 친화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대두됨

### 3.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

#### 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창업 생태계 현황

##### 1) 창업 생태계의 규모 변화<sup>45)</sup>

- '00~'22년 기간 신설법인 수 61,456개 → 123,305개로 약 2배 증가
  - 최근 4년간 신설법인은 27,150개 증가('16년 9.6만 개 → '20년 12.3만 개), 이는 '00~'20년 기간 신설법인 증가분(61,849개)의 43.8%
  - '11년부터는 매년 역대 신설법인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가, '18년에 10만 개 최초 달성, '20년에 12만 개 돌파

[그림 14] '00~'20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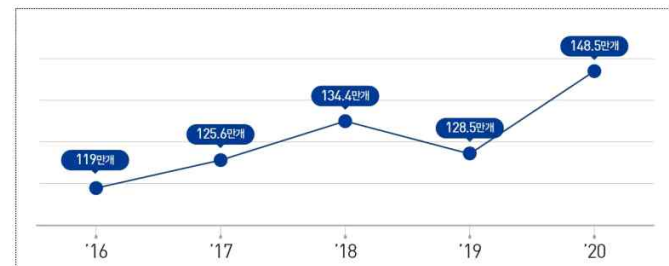


출처: 신설법인동향 및 창업기업동향('00~'20)

##### □ 창업기업 역시 증가 추이, 기술기반 창업은 22만 건 돌파

-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을 합한 창업기업은 최근 4년간 24.8% 증가 ('16년 119만 개 → '20년 148.5만 개)

[그림 15] '16~'20 연도별 창업기업 추이



출처: 창업기업동향 ('16~'20,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을 합한 전체 창업기업 통계)

45)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 기술기반 창업은 최근 4년간 20.1% 증가 ('16년 19.1만 개 → '20년 22.9만 개)
  - 기술기반업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6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OECD 및 EU 기준 준용

[그림 16] '16~'20 연도별 기술기반 창업기업 추이



출처: 창업기업동향 ('16~'20,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을 합한 전체 창업기업 통계)

## 2)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 □ 한국 유니콘 기업 급증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 상승

-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16년 2개에서 '20년 13개로 급증
  - '20년 유니콘 기업은 CB Insights<sup>46)</sup> 등재 11개社 + 중기부 자체 파악 2개社

[표 23] 연도별 유니콘 기업 현황(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니콘 기업	2	3	6	10	13

- 美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청년 글로벌 리더 중 한국 스타트업은 `16년 5개 이후 매년 꾸준히 선정되어,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
  - (포브스 글로벌 리더) 미주(`11~), 아시아·유럽·아프리카(`16~) 대륙별 차세대 지도자를 각 활동 분야별 30인(미주 총 600인, 아시아·유럽 각각 총 300인, 아프리카 30인) 선정

46) 미국 기반 기술시장 데이터 분석·조사 기관

[표 24] 2016~2021년 한국인 선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선정자 전체	15	32	24	28	25	23
스타트업	5	19	11	16	21	15
중기부 사업 참여	2	10	3	9	19	15

- 최근 3년 동안 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중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며, 수상기업은 '21년 22개 社로 '19년 5개 社 대비 4배 이상 증가
  - '21년은 엠투에스(M2S)가 최고혁신상 수상

[표 25] 최근 3년 한국 수상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9	2020	2021
중소기업	8	33	25
스타트업 비중	5(62.5)	24(75.0)	22(88.0)
중기부 창업지원 참여(비중)	5(62.5)	19(57.6)	18(72.0)

- 스타트업 지능 (Startup Genome)의 '20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결과(`20.6), 조사대상 270개 도시 중 서울이 처음으로 순위권인 20위 진입 서울 순위 : (`17) 순위권 (30위) 밖 → (`19) 순위권 (30위) 밖 → (`20) 20위
  - 스타트업 지능: 전세계 주요도시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기관
    - ◆ ①지식축적, ②시장진출, ③생태계활동성, ④인재, ⑤생태계연계성, ⑥자금조달, ⑦지속성장을 평가

### □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지난 4년간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
  -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 성공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16년 60.2점 (세계 46위)에서 `19년 86.0점(세계 7위)으로 대폭 개선

[표 26] 최근 4년간 한국의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16(64개)	'17(54개)	'18(49개)	'19(50개)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순위	46	29	26	7	17	22	14	2
	지수	60.2	68.6	70.0	86.0	79.7	76.7	80.7	92.4

출처: 글로벌 기업가정신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정신연구협회(GERA)

-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비율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세계 1위)
  -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17) 등 창업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 연대보증 면제 실적(조원): ('17) 2.9 → ('18) 17.3 → ('19) 26 → ('20) 36.4

[표 27] 최근 4년간 한국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16(64개)	'17(54개)	'18(49개)	'19(50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순위	43	35	28	50	39	22	46	21
	지수	31.5	32.2	32.8	7.1	35.1	44.5	29.7	44.7

-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창업생태계도 최근 4년 동안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창업생태계 분위기는 '16년부터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표 28]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창업자 대상 (단위: 점)

구분	'16	'17	'18	'19	'20
창업 생태계 분위기	55.0	63.9	68.0	73.4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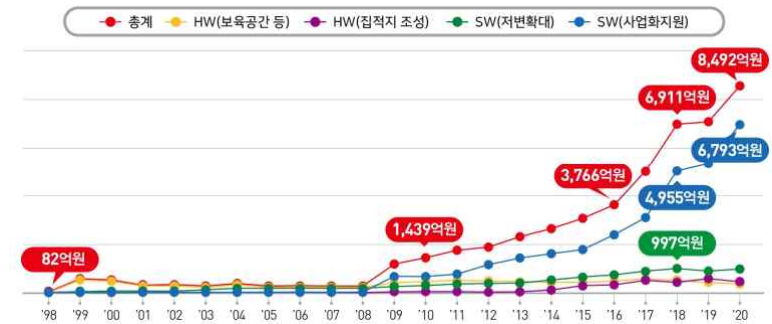
출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3) 정부의 창업생태계 기여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예산 급증

- 창업지원 예산은 '98년 최초 82억원을 편성한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대부분 성장이 이루어짐
  - '20년 창업지원 예산은 8,492억 원으로 '10년 예산 1,439억 원 대비 약 7천억 원(7,0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약 6배 (5.9배)에 달하는 수치
  - '20년(8,492억 원)은 '16년 (3,766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10년간 증가한 예산 7천억 원의 2/3 수준 (4,726억 원)

[그림 17] 연도별 창업 예산 추이



-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 의지를 보인 결과,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증가 ('16. 44 → '20, 66.5점)

[표 29]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 창업자 대상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부의 역할과 기여도	44.0	56.4	58.6	65.9	66.5

출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도별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 □ 부담금 면제, 세제부담 완화 등 창업 정책 개선

- (부담금 면제) '18.12월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종류를 대폭 확대 (기존 12개 → 변경 16개, 4개 추가)
  - (기존 12개) 산림·농지·초차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폐기물·물사용(4개) 부담금
  - (추가 4개) 교통·지하수·특정 물질·해양심층수 부담금
  - 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에 대한 4개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18.5→7년)
  - (4개, 도입) 산림('05), 개발('08), 농지 및 초지('15)

- **(세계부담 완화)**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시 공제 비율 확대('18)
  - 100% 공제 : ('15) 1.5천만 원 이하 → ('18) 3천만 원 이하
  - ('15) 1.5천만 원 ~ 5천만 원 50% 공제 → ('18) 3천만 원 ~ 5천만 원 70% 공제
-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17)
  - 연대보증 폐지 실적(조원) : ('17) 2.9 → ('18) 17.3 → ('19) 26
- **(창업비자제도 확대)** 해외 기술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과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술창업비자 및 준비비자 취득방법 확대

[표 30] 창업비자 세부 취득요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창업비자	- 창업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80점 취득) ('14.5~)	- 정부 창업사업에 선정되거나 해외 지재권 보유한 외국인 창업자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 ('14.5~)	
	-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19.5~)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선정 및 법인설립 ('20.4~)	
기술창업준비비자	- 기술창업계획서 심사 통과 ('14.5~)	-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보조금 수혜,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
	- 창업비자 프로그램 일부·전부 이수/참여 중 ('14.5~)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14.5~)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선정 ('20.3~)	

- **(공공구매제도 도입)**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규 도입('20.10), '21년부터 본격 시행
  -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8%)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20.4.7 공포), 같은 법 시행령('20.10.8 시행))
- **(창업사업 개편)**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18)하고, 예비·초기·도약기 등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19)
  - 글로벌 협업('19), BIG3 분야 창업·벤처 육성('20), 비대면 분야 신생기업 발굴·육성('20) 등 창업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

4) 주요 분야별 사업화 모델 변화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융합현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비중확대(공유경제와 코로나19) 비대면 분야, O2O 기업의 성장 가속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 기반 스타트업의 비중 확대**
  - 알파고 쇼크 (AlphaGo Shock, '16.3), 4차 산업혁명('16.6) 개념 대두 이후, '17년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출현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주로 연계된 응용 품목 분야는 '전문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바이오·헬스케어' 순으로 나타남
- ◆ 인공지능 품목구성 : 전문서비스(29%), 엔터테인먼트(14%), 바이오·헬스케어(11%)
- ◆ 빅데이터 품목구성 : 전문서비스(38%), 엔터테인먼트(15%), 바이오·헬스케어(7%)

[표 31]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기반 스타트업 예시

구분	세부 설명
전문서비스	AI·빅데이터·딥러닝을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 평가 솔루션
엔터테인먼트	AI·빅데이터·딥러닝을 활용한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챗봇
바이오·헬스케어	딥러닝 기반의 특정질환별 환자 상태 예측 모델

- '모바일 앱', '일반SW' 비중 축소를 고려하면 '17년 이후, ICT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
- ◆ 일반SW·모바일 앱 스타트업 비중(%) : ('09~'12) 21.2 → ('13~'16) 27.6 → ('17~'20) 16.5
- ◆ 인공지능·빅데이터 스타트업 비중(%) : ('09~'12) 0.6 → ('13~'16) 1.6 → ('17~'20) 8.8

○ **비대면 쇼핑, O2O 등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플랫폼-서비스·상품 중개'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
- ◆ 온라인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 금액(조원) 및 비중(%) : ('13) 7 (17%) → ('16) 36 (54%) → ('20) 108 (68%)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통계청)
- '서비스플랫폼-서비스·상품 중개' 분야 스타트업의 비중은 코로나 19('19.12월~)의 영향으로, '20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
- ◆ '서비스플랫폼-서비스·상품 중개' 비중(%) : ('09~'12) 2.2 → ('13~'16) 4.5 → ('17~'19) 8.9 → ('20) 12.5

○ **가상 융합현실(XR) 스타트업의 재조명**

- '10~'12년, 현실에 가상정보를 덧입히는 AR과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VR 중심으로, '가상융합기술·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이 강세
- '17년 이후, XR(AR+VR+MR)로 대변되는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과 5G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로, 주요 사업화 모델로 재등장한 것으로 평가
- ◆ '가상융합기술·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 비중(%) : ('10~'12) 1.0 → ('13~'16) 0.6 → ('17~'20) 1.3
- 제조, 의료, 유통 등 타 응용 분야로의 확장은 초기 단계

○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비중확대**

- 4차 산업혁명의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은 '14년부터 사업화 모델로 주목받은 후, 홈 라이프·전문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비중 확대

- ◆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비중(%): ('09~'13) 0.1 → ('14~'16) 2.4 → ('17~'20) 3.1
- 핀테크 분야의 경우, 일반SW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 가장 많으나, '17년 이후, 인공지능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도 등장
- ◆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반 기술 비중 변화: ('09~'16) 일반SW(59%), 모바일앱(30%) → ('17~'20) 일반SW(54%), 인공지능(13%), 모바일앱(12%), 블록체인(11%)
- ◆ 인공지능·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비중(%): ('09~'16) 0.01 → ('17~'20) 0.4

[그림 18]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사업화 모델의 현재 미래가치 이동 경로(BCG Matrix 분석)



참고: 좌·하단에 위치한 사업화 모델이 점차 유망한 방향(우·상단)으로 이동

□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스타트업 꾸준히 진출

○ 소비·산업활동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은 시대와 관계없이 주류

- 일반소비재 등 보편적 소비활동과 소재·부품·장비, 일반산업재 등 산업활동과 관련된 창업 사업화 모델은 꾸준히 높은 비중 차지
- 창업생태계 내 비중은 '09년 이후 대체로 지속 감소추세

[표 32] 주요 소비·산업활동 관련 창업 아이템의 시기별 비중 추이

구분	창업 아이템	'09~'12	'13~'16	'17~'20
소비활동	일반소비재 - 홈라이프	14.5%	10.4% (△4.1%p)	9.6% (△0.8%p)
	일반소비재 - 패션, 뷰티	5.0%	6.0% (+1.0%p)	5.7% (△0.3%p)
	일반소비재 - 식품, 음료	5.0%	3.9% (△1.1%p)	4.1% (+0.2%p)
	일반소비재 - 교육	1.4%	1.3% (△0.1%p)	0.7% (△0.5%p)
산업활동	소재·부품·장비 - 산업전반	13.8%	12.3% (△1.0%p)	8.5% (△3.8%p)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0.9%	0.6% (△0.3%p)	0.6% (-)
	일반산업재 - 건설	1.0%	0.5% (△0.5%p)	0.6% (+0.1%p)

○ 고부가가치 분야인 바이오·헬스케어도 지속 강세

- 질병 치료제, 의료장치·시스템 등 전통적 고기술·고부가가치분야인 바이오·헬스케어도 일반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일반지식서비스-바이오·헬스케어' 비중(%): ('09~'12) 4.1 → ('13~'16) 3.0 → ('17~'20) 4.6
- 문화·공연·미디어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꾸준한 수요 존재
- '일반지식서비스-엔터테인먼트' 비중(%): ('09~'12) 2.5 → ('13~'16) 3.4 → ('17~'20) 2.3

[그림 19] 수요가 꾸준히 있는 사업화 모델의 현재-미래가치 이동 경로(BCG Matrix 분석)



참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익 주종" 또는 "유망" 사업화 모델(우측)에 위치하는 경향

□ 모바일 앱, 일반SW는 '16년 이후 비중 감소추세

○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모바일 앱은 '16년 이후 감소

- '09년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게임 중심의 '모바일 앱-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은 '16년까지는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반SW-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비중도 '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전문서비스 분야는 일반SW·모바일 앱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 패러다임 변화

- 업무 효율화, 과학·기술·마케팅 분석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기반기술은, '16년까지는 일반SW와 모바일 앱이 큰 비중을 차지
- '17년 이후, '인공지능·빅데이터-전문서비스' 스타트업 비중이 증가하여 '일반SW·모바일 앱-전문서비스'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평가

[그림 20] 과거에 활발했던 사업화 모델의 현재-미래가치 이동 경로 (BCG Matrix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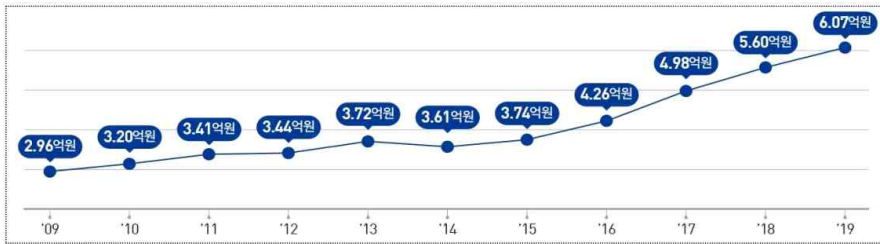
참고: '16년까지 현재·미래가치 상승(우·상향), '17년 이후 비중이 축소되며 다소 미래가치 하락(하향)

### 5)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특징과 성과

#### □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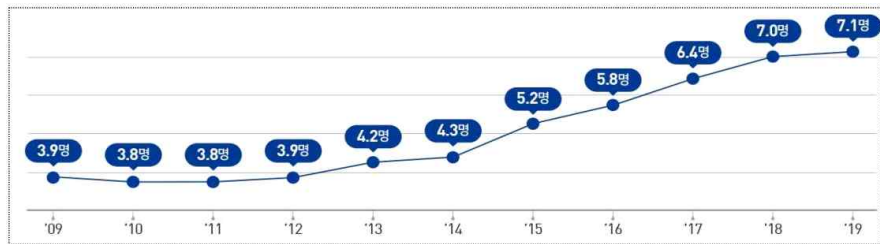
- (매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09. 2.96 → '19. 6.07억 원)
  - 최근 10년간 평균 매출 증감분(+3.11억 원) 중 '16년 이후의 증감분(+1.8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

[그림 21] 평균 매출 추이 (단위: 억 원)



- (고용) 평균 고용인원은 지난 10년간 약 1.8배 확대 ('09. 3.9 → '19. 7.1명)
  - '16년 이후 고용 연평균 증가율(CAGR)은 7.3%로 '09~'16년 연평균 증가율 5.8% 대비 약 25% (1.5%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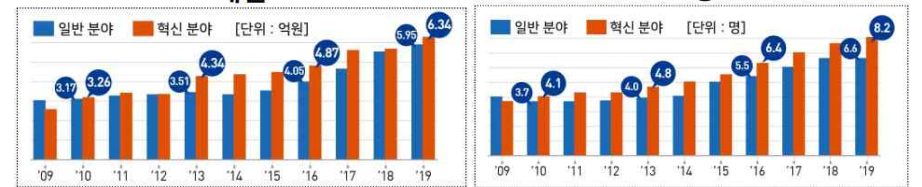
[그림 22] 평균 고용 추이 (단위: 명)



#### □ 혁신 창업기업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매출·고용 성과 우수

- '09~'19년 기간, 혁신 분야와 일반 분야 창업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 분야 창업기업이 일반 분야 대비 성과 우수
  - '19년 기준, 혁신 분야의 고용은 8.2명으로 일반 분야 6.6명 대비 24%, 혁신 분야 매출은 6.34억 원으로 일반 분야 5.95억 원 대비 6%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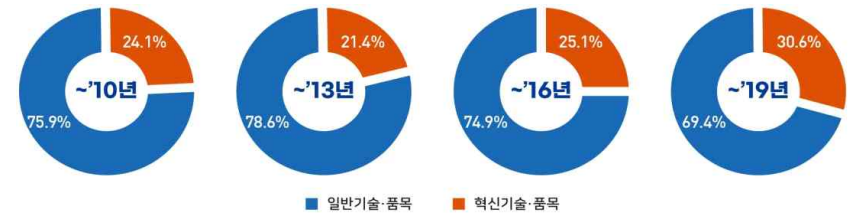
[그림 23] 기업의 매출 및 고용



#### □ '19년도 혁신 창업기업 비중은 최저점인 '13년도 대비 40% 상승

- 혁신 분야 창업기업 비중은 '13년까지 감소추세, '14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17년부터 혁신비중 증가가 가속화되어, '19년에는 최저점인 '13년 대비 143% 수준 도달
- 매출·고용 성과가 뛰어난 혁신 분야 창업기업 비중이 증가 → 창업생태계가 질적·양적으로 성숙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

[그림 24] 혁신 창업기업 비중



#### □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기업보다 우수

- 중기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전체 창업기업 대비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1년차 기업은 생존율이 약 1.5배 (1.45배)이며, 창업 5년 차에는 생존율이 약 2배 수준(1.83배)으로 높게 나타남 (생존율 차이 30%p 수준)

[표 33] 전체 창업기업과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 비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체	기업생멸 행정통계47)	63.7	52.8	44.7	36.7	31.2
지원기업	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92.5	86.1	75.4	65.0	57.1
생존율 차이(%P)		28.8	33.3	30.7	28.3	25.9

47)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나. 한국의 창업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1~2023)<sup>48)</sup>

[그림 25] 창업지원계획(2021~2023), 중소기업부

<b>비전</b>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b>목표</b>	<b>현재</b>	<b>미래 ('21~'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창업생존율(5년) : 3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창업기업 : 연간 28만개</li> <li>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40%</li> <li>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4위</li> <li>창업생존율(5년) : 40%</li> </ul>
<b>전략 ①</b>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②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b>전략 ④</b>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 ④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b>전략 ⑥</b>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전략 ⑥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 혁신·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분야 창업기준 및 범위 신규 마련(중기부 고시, '22)
- 신산업 창업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 시책 수립(예산 40% 이상 우선지원, 보육공간 입주 우대 등)
- 신산업분야 창업 사업화 지원 시 업력 기준 7 → 10년 이내 확대(창업법 개정 추진)

○ 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3대 유망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 집중 육성('21. 250개 社)

[표 34] 3대 유망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세부 지원 분야

분야	세부 분야	
시스템 반도체	SoC, 아날로그반도체, 스마트센서, 인프라(패키징, 테스트 등)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미래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센서, e-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통신,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	성장지원(배터리·모터·인버터 등), 수요다변(조향·현가·제동장치 등), 업종전환(엔진·변속기·오일류·전달장치 등)

48) 중소기업부(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년~2023년)

-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특화 창업지원 인프라인 'K-바이오 랩허브(Lab Hub)' 구축 추진
- (DNA) 데이터 기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본격 운영
- (탄소중립) '그린스타트업 2000' 운영,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시대 선도

○ 혁신 분야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수단 연계 지원

- (정책자금)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기술·사업성 평가 위주의 정책자금 확대 지원('21. 2.55조 원)
- (보증) 청년·초기 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 확대 및 우대 지원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최근 3년 이내)한 청년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크스타 보증 신설'(연간 약 2,000억 원, '21.하)
- (기술개발) 투자형 R&D('21. 335억 원), 후불형 R&D('21. 53억 원) 등 혁신 스타트업의 창의·도전형 R&D 적극 지원
- (인력)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개발인력 공급
- 스타트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 민관합동 OJT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신설('21~)
- (투자) 유망 스타트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환경 조성
- 성장단계별 펀드를 신규 조성('21. 약 8,000억 원) 하여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단계별 투자, 청년창업전용펀드 신설('21. 1,000억 원)
- 스마트 대한민국펀드(~'25. 6조 원) 및 지역벤처펀드(~'24. 5천억 원) 등 조성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 틈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 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 + 정부 지원 방식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21~)

[표 35] 단계별 TIPS 프로그램 개요

구분	Pre-TIPS (프리팁스)	TIPS (팁스)	Post-TIPS (포스트팁스)
지원 대상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팁스 '성공' 판정 및 민간투자 10억 원 이상을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지원 규모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최대 1년) 지원	R&D 최대 5억 원(최대 2년), 사업화·마케팅 각 최대 1억 원(각 최대 1년) 지원	후속사업화 자금 최대 5억 원(최대 2년) 지원

○ 스타트업 주도의 상생 기반 성장 및 글로벌화 촉진

-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① 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 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본격 운영(`21~)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의 분야별 강점을 활용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 확대(`21.하~)
- 해외 자원 및 거점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화 촉진

[표 36] 해외 거점 설치 현황

구분	텔아비브	뉴델리	시애틀	싱가포르	스톡홀름	헬싱키	파리
설치유형	프로그램형	거점형	거점형	거점형	거점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특화업종	의료바이오, 방산	에듀테크, 에그테크	자율주행, 리테일	핀테크, 스마트시티	AI, 그린산업	AR,VR,XR 스마트에너지	문화콘텐츠, 비대면산업

- ◆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 기능 강화 및 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확대,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

[표 37]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분	주요 내용	운영기관
K-Startup x Global 플랫폼(신설)	◆ 주한 외교공관이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자국기업 추천 → 국내 스타트업과 기술·사업제휴 등 매칭 지원(`21. 200여개사)	창업진흥원
KSC 개방형혁신 플랫폼	◆ IBM, 앨릭슨, 볼보 등 글로벌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등과의 1:1 비즈니스 미팅 등 네트워킹 진행(`21. 120여개사)	
글로벌기업 협력 스타트업 육성플랫폼	◆ Google,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등 공동 육성 프로젝트(`21. 200개사)	
포춘(Fortune) 500 커넥트	◆美경제지 '포춘'이 발표하는 미국 매출 최대기업(500위)과 국내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21. 300여개사)	무역협회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佛오랑주(이동통신사),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등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피칭대회 및 네트워킹 추진(`21. 80건)	KOTRA

○ 부처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 스타트업 특화 지원

-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분야별 유망 예비창업자(9개 부처 협업) 및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12개 부처 협업)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

- (지역창업 거점기능 강화) 창조경제센터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거점 및 단지·특구 등 연계, 투자·개방형 혁신 및 지역특화 창업 육성

[표 38]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 분야

센터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분야	로컬 크리에이터	5G	제조	제조	AI, 수소	ICT, 의료, 그린메카닉, 소셜벤처	5G	유통,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ICT
센터명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분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수소 융복합	에듀테크, 로봇	농수산, 바이오	금융 빅데이터, 융복합 첨단소재	로컬 크리에이터, 블록체인	그린 임팩트	바이오	

- (준비된 청년창업 지원)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선배 창업가 정기 멘토링 및 상담 시행(`21.하~)

○ 대학의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및 역할 강화

- (창업중심대학 지정)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21.하, 5개 대학 내외)

[그림 26] 창업중심대학 운영 개요




- (청년 게스트하우스) 대학 기숙사를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청년 스타트업에 제공(`21.하, 3개 대학 내외)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지역혁신거점 조성) 팀스타운, 스타트업타운, 캠퍼스혁신파크 등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 거점 확충

[그림 27] 지역 혁신 스타트업 거점 확충 계획

[대전 팀스타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내)</li> <li>▶ (규모) 지하 1층 ~ 지상 5층(대지 3,300㎡, 연면적 3,873㎡)</li> <li>▶ (구성) 입주공간(창업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등) 및 회의실 등</li> </ul>	
--	---

[인천 스타트업 파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천시 연극수 컨벤시아대로 204</li> <li>▶ (규모) 연면적 : 48,898㎡ / 전용면적 13,784㎡</li> <li>▶ (구성) 스타트업 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갖춘 3개동(인스타I, 인스타II, 인스타III) 및 중앙광장으로 구성</li> </ul>	
--	---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정책대상별 맞춤형 특화 창업지원 강화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전용 사업화 지원
  - ◆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만 2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신설('21.하~)
  - ◆ 부족한 사업 경험 보완을 위해 사업화 자금 외에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집중 운영
- 여성 스타트업 경력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 (사업화 지원) 기술기반 유망 여성 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지원('21. 320명)
  - ◆ (투자 지원) 유망 여성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지속 조성(~'24년, '20년말 기준 1,160억원 조성)
  - ◆ (창업공간 제공) 여성 특화형 창업공간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통한 전용 프로그램 강화
  - ◆ (여성창업 교육) 상향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선배 스타트업을 통한 여성 창업자 경영역량 제고
- 역량있는 장애인 유망 스타트업 육성
  - ◆ (사업화 지원) 유망분야 장애인 창업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제작·사업화 지원
  - ◆ (창업 교육) 장애인 창업기업 대상 전용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창업경진대회)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유망 창업아이디어 발굴·연계 지원
- ◆ (창업 인프라)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21. 50억 원)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창업 붐 확산

-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여, K-스타트업 및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강화(매년 11월경)

[그림 28]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슬러시 (핀란드)	테크크런치 (미국)	비바 테크놀로지 (프랑스)	웹 서밋 (포르투갈)	컴업 (대한민국)
				

-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 부처를 확대('20. 7개 → '21. 10개) 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 창업자 발굴 및 국내 유치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 기업가정신 확산 및 미래 창업인재 양성

- 고교학점제 시행('25)에 대비, 잠재적 혁신창업가 양성 및 창의인재 교육을 주도할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2천명 양성'(~'24)
- 교육 참여자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 디지털 가상 협업공간인 '(가칭)창업스쿨 라운지'를 구축하여 팀 빌딩 및 기술융합의 장으로 활용('22~)
- '창업교육 거점대학'('21년 2개)을 중심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대학 간 창업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대학 창업 인프라 공유

□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 범정부 창업지원 사업 지원체계 정립 및 'K-스타트업' 고도화

- (통합공고)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현행 중앙부처 중심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2~)
- (통합신청) 부처별,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하고, 범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신청·접수 서비스 제공('22~)
- (맞춤형서비스)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공유·지원하는 'K-스타트업 창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25)

[그림 29] K-스타트업 창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사업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확립
  - 통합광고 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 마련 및 공통기준 제시(`22)
  - 분절된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계획 수립·집행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역할 강화
  - ◆ 협의회 정례 운영, 중소기업정책심의회와 연계 강화 등

□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체계 구축
  -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 신설(`21.하~)
-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 친화적 제도 및 환경 조성
  - 창업 휴학 법적 근거 마련 및 2년 이상 창업 휴학 허용,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대학창업 운영매뉴얼 개정, `21.하)
  - 창업지원사업 서류 표준화 및 자율성에 기반한 절차 간소화(`22)
  - ◆ 창업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직접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방안 추진
  - ◆ 사업비 항목·성공판정 및 정산 등을 명확·간소화하여 창업기업 부담 경감 및 창업 활동에만 전념토록 보장

시사점

- (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90년대부터 ‘00년대 초반 벤처 붐으로 인해 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장려 및 지원 정책으로 관심도는 지속 상승하였으며, ‘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스타트업, 특히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의 수요가 부상
  - (혁신 스타트업의 차별성) 이는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체 사회(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벤처기업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보임
  - (유니콘) ‘유니콘’이라는 키워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논의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됨
- (창업 생태계의 역할에 대한 민관의 인식변화) 신생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변모하면서 한국 사회가 스타트업에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정책적 지원의 초점이 이동하는 추세
  - (사회·경제적 역할) 제조부품의 공급사 역할이 컸던 ‘90년대 스타트업 대비 최근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온라인·모바일 시대 혁신 서비스 제공자)이자 청년 일자리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책적 지원) 기존 법인세 감면과 대출 조건 완화 등이 주를 이뤘던 창업 지원 정책은 최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네트워킹 플랫폼 지원,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 공간 제공 등 그 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



## 4.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최근 창업·스타트업 대상 국내 정책의 방향성

#### □ 디지털경제 선도를 위한 혁신 스타트업 집중 발굴·육성

- **(정책환경)**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디지털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혁신 스타트업'이라는 인식 확대
  - 코로나19가 빅뱅(Big Bang)을 가져온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우리 스타트업이 선점해야 할 무한한 기회의 영역
- **(정책 방향)** 신산업 분야 및 BIG3·DNA·탄소중립 중심으로 창업 사업화 및 인프라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추세
  - 신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범위설정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

#### □ 협력과 상생 기반의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촉진

- **(정책환경)** ICT 발전 및 디지털화의 급진전으로, 창업생태계 내 교류·협력 수준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
  - 스타트업과 글로벌·대기업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 인식
- **(정책 방향)** 혁신 스타트업과 외부 자원 간 연계·협력 및 이를 통한 상생기반 성장 촉진
  - 민간, 대기업, 글로벌기업 등과 협력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도모

#### □ 지역 창업기반 확충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정책환경)** 수도권 인력 집중, 인프라 및 정보격차 등으로 지역 간·대상 간 창업생태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 **(정책 방향)**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을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정책수단별 연계 및 입체적 지원 강화
  - 지역 창업거점 확대 조성과 함께 청년·여성 등 정책대상별 유망 스타트업 지원 강화

#### □ 스타트업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정책환경)** 국내 스타트업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는 가운데, 창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 역시 개선되는 추세
  -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를 통해 우리 창업생태계 위상을 높이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 'کم업'을 세계 5대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교류 및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
  - 분야별·대상별 특화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확산·인재 양성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

#### □ 범정부 창업 정책 효율화 및 거버넌스 확립

- **(정책환경)** 창업지원 예산은 과거 20년간 약 100배 확대되었으나, 총괄 기능 미흡으로 기관 간 연계 및 효율적 지원에 한계 직면
- **(정책 방향)** 창업 정책·기관 간 연계를 강화, 창업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효율화 추진 중
  - 수요자 입장에서 창업지원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체계 강화
  - 범정부 창업정책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 역할 강화

#### □ 현장 창업규제·애로 해소 및 창업 친화적 제도 정비

- **(정책환경)**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진출 및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기존 산업 분야 및 사업·제도 체계와 갈등 발생
- **(정책 방향)** 현장 애로에 대한 세심한 소통 및 규제개선을 통해 창업의 걸림돌을 해소
  -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자유로운 창업 활동 보장을 위한 서류·절차 간소화,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등 추진

### 2)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국가전략기술·산업 육성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정책금융의 설계가 중요
  -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의 적정규모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정책 목적과 상업적 이익 간의 균형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 것인지 결정 필요
- **(성장의 전 단계에서 병목 없는 지원 필요)**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필요
  - IPO에 대한 회수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 유럽과 마찬가지로 후기투자·대형라운드 자금 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공공 구매는 수요자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동인을 제공하므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정부 대형 프로젝트에 스타트업 참여 의무화 필요



-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강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해외 인재·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보하는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고, 유럽은 범국가 차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자국 외 국가대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며, 동남아시아는 중산층 확대, 모바일 경제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한계로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개선)** 우리나라는 창업률은 높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수준으로, 생존율이 낮을 경우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과 경제에 미치는 혁신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
  - 낮은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 비중 확대, 미래성장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
-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모형 제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준에 의해 개별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기업군의 특성(공통점과 유사점)과 마일스톤 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법칙 발견 필요
- **(단계별 창업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준에 의해 개별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기업군의 특성(공통점과 유사점)과 마일스톤 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법칙 발견 필요
- **(폐업에 대한 지원)** 기업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민간 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전에 관한 지원 확대 필요

## 5. 기타 경제 동향

### □ 중국 7월 경제 지표 발표 (8.15 국가통계국)<sup>49)</sup>

- 8월 15일, 국가통계국은 7월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통합 추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며 국민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실현하였으나,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승하고 국내 경제 회복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함
  - **(물가)** CPI(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6월 상승률 대비 0.2%p ↑), 1~7월 평균 1.8% 상승함. 한편, PPI(생산자물가지수)는 7월 전년 동기대비 4.2% 상승(6월 상승률 대비 1.9%p ↓), 1~7월 평균 7.2% 상승함
  - **(고용)** 1~7월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는 783만 명이며, 7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5.4%(6월 실업률 대비 0.1%p ↓)를 기록함
  - **(서비스업)** 7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6월 증가율 대비 0.7%p ↓)함. 이 중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은 10.3% 증가, △금융업은 4.9% 증가함
  - **(하반기 경제 전망)** 경제 회복 지속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방역 안정, △경제 안정, △발전 안보 보장 등 정책의 효과로 인해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증가율 둔화)**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의 한계효용 체감, △시장 비수기 진입,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7월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자동차 및 관련 제품, 석유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이 각각 9.7%, 14.2% 증가하는 데 그쳐, 6월 증가율 대비 각각 4.2%p, 0.5%p 축소됨

### □ 중국 인민은행, LPR(대출우대금리) 인하

- 인민은행이 8.22(월) 1년, 5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을 모두 인하한 바, 1년 만기 LPR은 전월 대비 0.05%p 인하한 3.65%로, 5년 만기 LPR은 전월 대비 0.15%p 인하한 4.3%로 설정함
- 광다은행 Zhou Maohua 연구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용자 수요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용자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되며,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을 위해 핵심적인 단계에 있는 만큼, 인민은행이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 7월 신규 사회용자 규모는 7,5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91억 위안 감소하며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신규 주민 대출액은 1,21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842억 위안 감소 (8.12, 인민은행)

49)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2년 7월 경제 지표 발표 등' 국무원 상무회의, 실물경제 지원 지시 등'(2022.08.16.)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796&page=1](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796&page=1)

□ 동티모르-UN, 플라스틱 폐기물 퇴치를 위한 새로운 협약 완성<sup>50)</sup>

- 동티모르는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에 맞서 전지구적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협약에 서명할 예정. 환경부 장관 Diometri Amaral은 동티모르가 두 가지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
  - △쇼핑백 생산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보존 △플라스틱 품목의 일회용에 관련된 내용

□ 말레이시아 최근 경제 동향<sup>51)</sup>

- **(경제성장)** 말레이시아 성장률은 내수 확대,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선, 전기전자 부문 등의 견고한 수출, 정부 지원정책,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하여 2022년 2/4분기에 8.9%(전년동기대비) 기록함
  - 경제활동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주도함
- **(물가)** 2022.2/4분기 중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은 근원 인플레이션율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한 +2.8%를 기록함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내수 개선에 따른 외식비, 숙박비 상승 등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한 +2.5% 기록함
- **(고용)** 고용시장은 2022.2/4분기 중 경제활동 강화 등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중임
  - 실업률은 3.9%로 하락하고, 민간부문(제조업 및 서비스업) 임금은 7.8% 증가함
- **(외환시장)** 2022.6월 말 말레이시아 링깃화/미달러화 환율은 전반적인 미달러화 강세 및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risk off) 영향으로 상승(통화가치 약세)하여 4.406링깃/USD를 기록함(2022.3월 말 4.204)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2.2/4분기 중 FDI 순유입액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244억 링깃)보다 감소한 173억 링깃을 기록함(분기말 잔액 8,362억 링깃)

50)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 '동티모르 국내 뉴스'(2022.08.24.) [https://overseas.mofa.go.kr/til-ko/brd/m\\_1830/view.do?seq=1343257&page=1](https://overseas.mofa.go.kr/til-ko/brd/m_1830/view.do?seq=1343257&page=1)  
 51)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말레이시아 2022.2/4분기 경제동향'(2022.08.30.)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8/view.do?seq=1343430&page=1](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8/view.do?seq=1343430&page=1)

□ 베트남 최근 경제 동향<sup>52)</sup>

- **(산업생산지수 증가)** '22년 7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함. 올 1월부터 7월까지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함
  - 이 중 제조가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최대증가치를 보임. 제조업은 9.7% 증가함. 올 7개월간 전국 63개 성시 중 61개 지역의 IIP는 증가했으며, 짜빙(-30.5%), 하띤(-10.8%) 2개성에서만 감소를 보임. 올 7월 1일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함
- **(제조 및 건설사)** 베트남 통계청에서 제조가공 부문 5,635개사, 건설부문 6,315개사에게 실시한 분기별 생산 및 사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가 올 3분기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동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44.9%는 신규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3.8%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올 3분기 응답 기업의 20.2%는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9.3%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 통계청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설 부문의 투입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 하며, 기업의 자금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함

□ 인도네시아, 7월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sup>53)</sup>

- '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대비)은 4.94%로, 이는 '15년 10월(6.25%) 이후 최고 수치이며, '22년 1월(2.18%), 2월(2.06%), 3월(2.64%), 4월(3.47%), 5월(3.55%), 6월(4.3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월대비)은 0.64%로, 전월의 0.61% 상승보다 높았으며, 2021.7월의 0.08%보다는 여전히 높음
- **(인니 중앙은행)** 인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의 위험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물론 필요한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 또한 중앙-지역 인플레이션 통제조직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조정을 지속 강화하여, 공급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고 생산을 촉진할 예정임
- **(재무부)** 인니 재무장관은 7월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대비 4.94%로서,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 시장의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유사 그룹 및 수준에 있는 태국(7.7%), 인도(7%), 필리핀(6.1%)과 비교할 때, 비교적 온건한(relatively moderate) 수준이라고 언급함

52)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투자뉴스 제812호(제공KOTRA 하노이무역관)'(2022.08.15.)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7/view.do?seq=1345967&page=1](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7/view.do?seq=1345967&page=1)  
 53)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7월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2022.08.04.)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1/view.do?seq=1323086&page=1](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1/view.do?seq=1323086&page=1)

□ 캄보디아 최근 경제 동향<sup>54)</sup>

- (최저 임금 결정 회의) 노동부는 8월 15일 노·사·정 대표에 의한 내년도 봉제근로자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9월 23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2년 캄보디아 봉제근로자 최저 임금은 194달러임
  - 깡 모니까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 사무차장은 일본대외무역기구(JETRO)의 통계를 인용하여, “21년 캄보디아 기업 중 이익을 낸 기업은 39%, 적자를 낸 기업은 43%, 나머지 18%는 손익분기점을 유지했다”고 언급
- (상반기 세수 증가) 캄 세금총국(GDT)의 발표(8.15)에 의하면, 1-7월간 GDT의 세수(관세 제외)는 약 22.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으며, 이는 '22년 연간 목표액 28.20억 달러의 78.39%에 해당함
  - 쯡 비블 GDT 청장은 지정학적 이슈와 글로벌 안보·세계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연속 31개월간 세수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함

□ 네팔 최근 경제 동향<sup>55)</sup>

- (경제성장률) 네팔 정부가 FY22/23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FY22/23 GDP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은행 전망치인 4.1%보다 약 2배 높은 8%로 추정함
  - 네팔 정부가 인플레이션 및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해 수입 및 소비 억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선 8% 성장 목표는 높다는 지적이 있음
  - 네팔 중앙통계국이 `22.4월 발표한 FY21/22 GDP 성장률은 5.84%로, IMF 4.1%, 세계은행 3.7%보다 다소 높음
- (물가) '22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8.56% 증가로 이는 최근 7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함
  - 네팔중앙은행이 `22년 7월 실시한 인플레이션기대조사(IES)에서 네팔 소비자들의 향후 3개월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4%로 물가 추가 상승 전망임
- (외환시장) '22년 6월 기준 외환보유고 94.48억불(`21년 7월 대비 19.6% 감소)
  -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달러 대비 네팔루피화(NPR) 가치 하락 등의 영향을 미침

54)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경제 동향'(2022.08.19.)  
[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104/view.do?seq=1345963&page=1](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104/view.do?seq=1345963&page=1)  
 55)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네팔 2022년 2분기 경제동향'(2022.08.02.)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1720/view.do?seq=1321051&page=1](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1720/view.do?seq=1321051&page=1)

□ 뉴질랜드 최근 경기 동향<sup>56)</sup>

- (기업경기) 7월 기업신뢰지수\*는 -56.7로 전월(-62.6)대비 소폭 개선됨. 7월 기업 자체활동지수는 -8.7(6월 -9.1), 기대인플레이션은 6.23%(6월 6.02%)를 기록함
  -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상승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 \*ANZ Business Confidence :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
- (제조업) 7월 제조업지수(PMI)\*는 52.7 (6월 50.0)로 제조업 분야가 점차 확대될 국면임. 지난달 대비 2.7 포인트 상승하며 1개월 만에 확장국면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 장기 평균(53.1)에는 못 미치는 수준
  - 개별 지표로는 생산(49.0), 고용(52.6), 및 신규주문(50.5)은 전달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생산은 2개월 연속 수축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재고(49.4) 및 배송(49.4)은 전달대비 하락하며 50선을 하회
- \* 통상 PMI(Performance of Manufacturing Index)가 50.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

□ 방글라데시 대외 부채 및 외국 원조 동향<sup>57)</sup>

- (대외 부채) 방글라데시 총 대외 부채는 2021/22 회계연도 9개월간 85억불 증가한 932.3억불 기록함
  - 동 기간중 방글라데시 민간부문 채무는 63억불 증가한 230억불이며 정부 전체의 채무는 '22년 3월 기준 682.5억불로, '21년 6월 대비 53.7억불 증가했으며, 총 정부 채무의 83%는 장기 양허성 채무임
- ERD(대외관계청)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개발 파트너들로부터의 대외차관은 100억불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ADB 25.6억불, 일본 22.1억불, 세계은행 16.7억불로 최대 공여자이며, 다음이 러시아 12.2억불(Rooppur 원전 관련), 중국 10억불, 인도 3.24억불, AIIB 3억불 순임
  - 한편 방글라데시는 2021/22 회계연도 20.1억불 채무를 상환함(2020/21 회계연도에는 19.1억불 상환)
- ERD 예측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대외차관 상환 부담은 '29년~'30년 51.5억불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대외채무는 2021/22 회계연도 18.1%였으나, 2031/32년에는 13.4%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56)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뉴질랜드 2022.7월 경기 동향'(2022.08.24.)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21114/view.do?seq=1346452&page=1](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21114/view.do?seq=1346452&page=1)  
 57)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동향'(2022.08.01.)  
[https://overseas.mofa.go.kr/bd-ko/brd/m\\_2162/view.do?seq=1342482&page=1](https://overseas.mofa.go.kr/bd-ko/brd/m_2162/view.do?seq=1342482&page=1)

□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 동향58)

- (러시아와 가스 수입 관한 협정 추진) 러시아 석유 수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탈레반 Azizi 산업통상부 장관대행은 양측이 곧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협의하였으며, 제3국을 통해 대금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우즈베크와 공동무역지구 조성) 탈레반이 아프간 Balkh주와 우즈베크 Surhandarya주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공동무역지구(joint trade zone)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며, 무역지구는 약 120에이커 규모로 총 7천 5백만 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재무부·광산석유부의 경제인 회담 주최) 재무부와 광산석유부는 카불 Serena 호텔에서 아프간 경제인들과 만나 수출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며, 재무부는 아프간 내부 생산품 소비증진을 위해 수입물품 대상 일부 관세를 인상하였다고 밝혔음
  - 광산석유부는 전국의 소규모 광산 51여 개에 대해 입찰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며, 광업 투자를 장려함
  - 아프간상공회의소(ACCI)는 대내 시장수요 감소로 인하여 이란으로부터의 수입량 규모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이란 수출량까지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함

□ 인도 최근 경제 동향59)

- (정규직 일자리 창출 최대 수준) 인도 통계부가 발표한 잠정급여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6월에 올해 기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함
  - EPFO(후생적립기금)에 따른 순 신규 가입자는 5월 147만 명에서 6월 183만 명으로 24.4% 증가했으며 ESIC(후생보험공사)에 따른 순 신규 가입자는 전월의 150만 명에서 6월 154만 명으로 2.67% 증가함
  - 이에 따라 Covid-19의 2차 팬데믹에 의해 타격을 받은 '21년 6월 수준과 비교하여 공식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밀가루 수출 제한)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경제위원회(CCEA)는 밀가루의 수출 제한/금지 정책을 수정하는 제안을 승인했으며 대외무역총국(DGFT)은 이에 대해 조만간 통보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성명서에서 이전에는 밀가루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정책이었다며 식량 안보 및 밀가루 가격 인상을 점검하기 위해 밀가루 금지/제한을 면제하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58)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 주간경제'(2022.08.29.)  
[https://overseas.mofa.go.kr/af-ko/brd/m\\_2629/view.do?seq=1345003&page=1](https://overseas.mofa.go.kr/af-ko/brd/m_2629/view.do?seq=1345003&page=1)  
 59)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경제 언론동향'(2022.08.26.)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95&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95&page=1)

□ 미국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60)

- (물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 상승하여 41년내 최고치를 경신함. 다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유가·원자재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부터는 느리고 완만한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짐
- (고용) 6월 고용시장은 신규고용 +37.2만명(전월대비), 실업률 3.6% 등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지만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세를 보임
  - 신규고용(비농업부문취업자)은 △레저·숙박업(+6.7만명) △전문·기업서비스업(+7.4만명), △교육·의료업(+9.6만명) 등에서 증가함
  -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노동시장이 서서히 악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민간투자) 금리 상승 등으로 설비투자(△2.7%), 주택투자(△14%) 등이 크게 감소하여 2사분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이는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됨
  - 6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생산(△1.5%), 유틸리티 생산(△1.4%) 등이 감소하면서 금년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됨
- (국채금리) 그동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국채10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 6월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7월에 크게 하락함

□ 캐나다 경제·통상 동향61)

- (멕시코 에너지 정책에 반대 입장) 통상장관은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이 새 북미협정(CUSMA)의무에 위배된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 문제를 CUSMA 자체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
  - 멕시코의 보호주의적 에너지 정책이 CUSMA의 정신과 규칙을 모두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 미국의 분쟁해결협상을 지원한다는 입장임
- (산업별 탄소가격책정 시스템) 연방정부는 '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가격책정시스템을 통해 석유·가스 부분의 배출량 상한선 설정을 제안함
  - 알버타 에너지장관은 의미 있는 협의를 거친 연방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며 합법적인 자원개발을 방해하는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60)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최근 미국경제 동향'(2022.07.29.)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3660/view.do?seq=1342650&page=1](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3660/view.do?seq=1342650&page=1)  
 61)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2022년 7월 4주 캐나다 경제동향'(2022.07.29.)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6/view.do?seq=1326228&page=1](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6/view.do?seq=1326228&page=1)



□ 도미니카공화국, 하반기 경제 성장률 5.3% 달성 전망<sup>62)</sup>

- 중남미·카리브 경제 위원회(CEPAL) 연례 보고서 「중남미· 카리브 경제 조사 2022」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 낮은 무역 성장,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재정긴축 등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중남미 지역 하반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저성장 마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CEPAL은 중남미·카리브 국가 중 평균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베네수엘라(10%), 파나마(7%), 콜롬비아(6.5%), 도미니카공화국(5.3%), 우루과이(4.5%), 과테말라(4%)로 평균 경제성장률(2.7%) 보다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 중앙은행(BCRD) 국제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8월 19일 주재국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공) 페소화는 1달러 당 53.2908로 마감하고 페소화 절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콜롬비아 및 페루 투자자로부터의 외국 자본 유입 증가, 관광객, 해외유입 송금액 및 자유무역지구 수출액 증가가 페소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함

□ 브라질 최근 경제 동향<sup>63)</sup>

- (기준금리 인상) 금통위는 지난 6월에 이어 금번에도 기준금리를 0.5% 인상, 13.75%로 결정(만장일치 의결)한바,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21년 3월(2.0%) 이후 12회 연속 인상됨
  - 중앙은행은 금번 금리 인상은 글로벌 차원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우려 등 외부경제환경 및 브라질의 현 경제상황(정부 재정상황,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수준, 2/4분기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물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3%로 직전 6월 0.69%에 비해 0.56%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6월 기준 12개월 누적 물가는 11.89%로 중앙은행이 설정한 올해 물가수준 목표치(5.0%)를 크게 상회함
  - 7월 물가 상승률(0.13%)는 '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연료세 등 감세정책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함
  - (이자율 전망) 중앙은행은 연말 금리수준은 13.25%으로 하락하고, 내년 10.0% 및 내후년 7.50%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함. 금통위는 차기 금통위 회동(9.20~21)시 추가적인 조정을 위해 보다 완화된 수준(lesser magnitude)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이는 연말 기준 금리가 14%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암시함

62) 주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경제 동향'(2022.08.26.) [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4/view.do?seq=1347805&page=1](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4/view.do?seq=1347805&page=1)  
 63)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브라질 최근 경제동향(기준금리 0.5% 인상)'(2022.08.10.)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6/view.do?seq=1159930&page=1](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6/view.do?seq=1159930&page=1)

□ 러시아 최근 금융시장 동향<sup>64)</sup>

- (외환시장)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은 금융통합 일환으로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대신에 △각국의 금융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별도 결제기구 창설을 협의 중에 있음
  - 금융통합 로드맵은 9월 SCO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계획이며, 회원국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협력 및 거래는 제외될 방침임
- (은행) 씨티그룹은 러시아 익스포저(Exposure) 리스크 경감 노력의 일환으로 소매금융(Consumer banking)과 현지 상업금융(Local commercial banking) 사업을 정리한다고 8월 25일 발표함
  - 사업 정리는 3/4분기에 시작되어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15개 지점 2,3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1.7억 미불의 철수 비용 발생이 추정됨
- (물가) 8월 3주차(16일~22일) 주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주 -0.13%에서 -0.15%로 물가 하락세가 지속됨
  -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전주 14.87%에서 14.6%로 감소했으며, 연초 대비 10.56%까지 하락했음
  - 8월 3주차 소비재 시장 전반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으며 식료품군 물가는 -0.3%, 비식료품군은 -0.04%, 서비스군 물가는 -0.06%를 기록함

□ 벨라루스 최근 경제 동향<sup>65)</sup>

- (외환보유고 증가) 벨라루스 중앙은행은 8월 1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75.62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약 5.6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함.
  - 또한 내달부터 세부 구조와 증감 사유를 배제하고 외환보유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수출량)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은 올해 상반기 벨라루스 수출량이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 가장 큰 폭의 하락(-22.9%)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수출망 다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힘
  - 상품 수입은 전년대비 8.9% 감소하였고, 무역 적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11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하락함

64)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러시아 금융시장동향'(2022.08.30.)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23122/view.do?seq=1347241&page=1](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23122/view.do?seq=1347241&page=1)  
 65)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벨라루스 동향'(2022.08.30.) [https://overseas.mofa.go.kr/by-ko/brd/m\\_7639/view.do?seq=1346988&page=1](https://overseas.mofa.go.kr/by-ko/brd/m_7639/view.do?seq=1346988&page=1)



## 참고문헌

- ASEAN Secretariat(2020). “ASEAN Guidelines on Fostering a Vibrant Ecosystem for Startups across Southeast Asia.”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8/ASEAN-Guidelines-on-Fostering-a-Vibrant-Ecosystem-for-Startups-across-Southeast-Asia.pdf>.
- EC(2021). “Declaration on the EU Startup Nations Standard of Excellence.”  
<https://startupnationsstandard.eu/index.html>.
- EC(2013).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Reignit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Europ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3A2012%3A0795%3AFIN%3AEN%3APDF>.
-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https://www.oecd.org/cfe/>.
-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Cultivating successful entrepreneurs.” <https://www.oecd.org/cfe/leed/entrepreneurship.htm>.
- OECD(2022). “Recommendation on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https://www.oecd.org/cfe/smes/oecdrecommendationonsmeandentrepreneurshipolicy/>.
- Startup Blink.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https://www.startupblink.com/startupecosystemreport>.
- Startup Blink. <https://www.startupblink.com/startup-ecosystem/dublin-ie>.
-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https://startupgenome.com/reports/gser2022>.
- UNCTAD(2012). “Entrepreneurship Policy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Guidance.”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aeed2012d1_en.pdf).
- UNCTAD 웹사이트. “Enterprise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 Policy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Guidance.”  
<https://unctad.org/topic/enterprise-development/entrepreneurship-policy-hub>.
- UN Foundations 웹사이트. “Global Entrepreneurs Council.”  
<https://unfoundation.org/what-we-do/initiatives/global-entrepreneurs-council/>.
- UN-SPBF 웹사이트. <https://un-spbf.org>.

- 김소정, ‘2021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일본 스타트업 5곳’, Kotra 해외시장 뉴스(2022.03.2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3192)
- 김영우(2018). 「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 KIEP(2018).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100000&bid=0001&tag=&b\\_list=10&act=view&list\\_no=2364&nPage=20&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100000&bid=0001&tag=&b_list=10&act=view&list_no=2364&nPage=20&vlist_no_npage=0&keyField=&keyWord=&orderby=)
- 서대훈,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 아산나눔재단(2019). “스타트업코리아.” <https://asan-nanum.org/news/press/>.
- 오지선(2016). 「일본의 창업 동향과 창업생태계」.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50762>
- 유지혜,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BBB의 역할(2019)」
- 전규열, “핀테크·이커머스로 창업 강국 된 인도네시아”, 주간경향 1472호(2022.04.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202204011419411)
- 최혜진,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Kotra해외시장뉴스(2018.01.0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63688)
-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년~2023년)」.
- 통계청(2018).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KIEP(2022).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발전 전망」.
- KIEP(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list\\_no=9635&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list_no=9635&act=view)
- KIEP(2022).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과 정부의 기대 역할」.
- KIEP(2022). 「인도네시아 국가 AI 전략의 중점 목표와 과제」.

- KIEP(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2427&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2427&act=view)
- KIEP(2019).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2429&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2429&act=view)
- KITA(2020).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비즈니스 트렌드」.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classification=3&no=2028>
- KITA(2018).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46358>
- KITA(2018). 「2018년 인도 스타트업 현황」.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Detail.do?pageIndex=1&no=7647&classification=6>
- KITA(2018). 「IT TRADE FOCUS 54호, 인도의 스타트업 저액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 KOCCA(2020).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 - 해외 콘텐츠기업 탐방」.
- KOCCA(2020). 「2020 싱가포르 특화보고서 - 시장분석보고서」.
-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중국」.
- KOTRA(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GUIDE BOOK 베트남」.